

不平等深化過程의 展開로서의

韓國의 工業化, 1910~1960 (其 2)

林 鍾 哲

| | |
|-------|--------------------------|
| <目 次> | |
| 第 3 章 | 不平等機構의 確立 (I), 1921~1936 |
| 第 1 節 | 近代的企業의 成長 |
| 第 2 節 | 工業化의 諸樣相 |
| 第 3 節 | 生活水準의 變化 |

第 3 章 不平等機構의 確立 (I), 1921~1936

第 1 節 近代的企業의 成長

1920年 4月 1日을 기하여 長長 10年의 오랜 세월에 걸쳐 韓國에 있어서의 民族資本의 育成과 또 이를 기초로 하는 資本主義的工業化의 可能性을 강력하게 沮止하고 있던 「會社令」이 철폐되었고⁽¹⁾ 第 1次世界大戰의 戰爭景氣를 틈 타서 급속한 成長을 보인 日本資本主義는 새로운 기회를 찾아 물밀듯이 韓國으로 侵入해왔다.⁽²⁾ 日本資本의 流入은 1945年

(1) 「不正泡汰會社를 일으켜 內地 및 朝鮮의 資本家로 하여금 不測의 損害를 입히는 동시에 健實한 朝鮮産業의 發達을 沮止하기에 이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許可主義에 의해 그 設立을 容許할 필요성이 있었다」(朝鮮經濟年報 昭和 14年版 第 59面)는 「會社令」은 其實施이래 폐지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은 事項을 處理했다.

| | |
|-------------------|--------------|
| 鮮外會社의 朝鮮支店設置申請 | 91件(許可85件) |
| 同上 本店設置申請 | 11件(全部許可) |
| 鮮內에서의 會社設置申請 | 676件(許可556件) |
| 既設會社에 대해 解散을 命한 것 | 7件 |
| 同上支店閉鎖를 命한 것 | 1件 |

(資料; 朝鮮總督府 施政25年史 432面)

1919年 12月 31日 현재로 보면 會社設立申請은 모두 473件인데 出願人 民族別로 보면 日人 306件, 韓人 84件, 日韓合同 80件, 日外合同 1件 外人 2件이며 同年末現在 營業中의 會社는 本支店포함 日人 339社, 韓人 63社, 日韓合同 22社, 日外合同 1社 外人 10社 都合 435社가 『會社令』下에 設立되었다. <朝鮮經濟雜誌 第50號(大正 9年 2月) 第 9面>

(2) 1910年末에 韓國에 本店을 둔 會社數는 152個, 公稱資本金은 合計 3,900萬圓이었고 1919年末에는 會社數 366個, 公稱資本金 合計 2億 50萬圓으로 會社令施行期間중에는 年평균 會社數로 24社, 公稱資本金으로는 1천 8백萬圓의 증가이었는데 1936年末까지는 會社數 2721社, 公稱資本金 11億 8천 4백만圓으로 年평균 會社數로 139社, 公稱資本金으로는 5천 8백만圓의 增加率을 보이고 있다.

日本帝國主義의 敗亡까지 계속되었는데 우리는 工業化의 性格變化에 着眼하여 日本經濟가 戰時體制로 轉換되어 韓半島에 이루어지던 工業投資도 현저히 軍需産業的 重工業化의 樣相을 띠우게 된 1937年 이전까지 즉 韓國資本主義가 植民母國인 日本의 그것에 比하여 相對的으로 自由經濟의 色彩를 띠우고 있던 17年間을 不平等機構展開의 第2期로서 區分하고자 한다.⁽³⁾

會社令의 철폐로 비롯 法制的으로는 韓國민에게도 企業設立의 자유가 부여 되었으나 近代化로의 轉換期에 처하여 최초의 10년간에 그들에게 강요되었던 差別化는 이미 움직일 수 없는 不平等機構를 구축하였고 불평등한 基盤위에서 시행되는 「競技의 規則」rule of games은 경제적 약자인 韓國민에게 더 없이 가혹하게 작용하였다. 장래에 있어서의 생산의 증가를 가능하게 하고 그럼으로써 생활의 向上을 실현시켜주는 우리努力의 표현인 投資行爲가 형식적으로는 자유를 얻었지만 그에 先行되는 10년간에 資本蓄積의 潛在的可能性마저도 상실당한 韓國민에게는 앞으로 論證될 바와 같이 資本主義의 正常的인 발전은 불가능하였고 다만 韓國에서의 무자비한 植民地收奪을 통한 補助裝置附離陸 assisted take-off에 성공한 日本으로부터의 所謂 移植資本主義만이 발전하게 되었다. 이때로부터 日本이 敗亡하기까지는 日本帝國經濟圈의 一環으로서의 韓國에서는 移植資本主義에 의한 거대한 地理的投資의 형성 및 그것이 미치는 강력한 逆行效果가 韓國민을 중심으로 하는 經濟的奧地에 작용하였고 不平等을 類例없는 규모로까지 擴張시켰다.

이 期間을 통하여 工業의 成長이 있기는 하였고 또 그 推進體가 植民地支配者인 日本資本主義였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그것이 韓國의 工業化와 經濟開發을 적극적으로 진행시켰다는 주장은 當該期間에 이루어졌던 發展의 자취를 史實에 立脚하여 분석할 때 首肯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亡國이후 日本資本主義에 의해 추진된 近代化過程에 있어 분명히 눈부신 정도의 工業發展이 있었고 그것은 특히 20年代에 들어서면서 현저해지고 30年代에 있어서는 거의 類例없는 정도의 성장율을 보이고 있지만 一見하여 이처럼 魅惑的으로 보이는 工業成長率도 日本이 1870~1905년 사이에 실현하였던 工業의 年成長率과 같다는 것을 보면 그 期間의 成長이 植民地政府의 특별한 政策的配慮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工業化의 初期에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다.⁽⁴⁾

(3) 經濟活動을 規制하던 法規面에서 본다면 이 期間은 會社令의 撤廢(1920年 4月)부터 重要産業統制法의 朝鮮施行(1937年 3月)直前까지의 17年間이 이에 해당된다.

(4) 1921~36년간에 있어서의 韓國工業의 年平均實質成長率은 11.8%로서 日本의 1870~1905年間의 實績과 같고 同國의 1905~1920년간의 9.1%나 또는 1920~36년간의 7.25%를 上廻하고 있다.

3.1 運動을 계기로 한 日本의 植民地政策의 변화로 말미암아 그때까지 公公然하게 행하여졌던 工業發展에 대한 妨害는 사라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있어서의 工業化는 이를 「内地(日本)에 대한 補充的地位」에 始終케 하려는 「外地의事情」⁽⁵⁾에 의하여 크게 歪曲된 방향으로 추진되어 工業化를 통한 近代的經濟構造의 形成은 오히려 한국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阻害하고 이를 하나의 依存經濟로 轉落케 하였던 것이다.

「會社令」을 방패로 하여 原始產業分野 및 流通分野에서 수탈을 감행하던 日本資本主義가 第1次世界大戰을 계기로 하여 商人資本主義의 性格을 탈피하고 近代的產業資本主義로 移行되어감에 따라 한국경제에도 새로운 可能性이 열리어 종래의 農業爲主에서 소위 農工併進으로의 政策轉換이 생겼고 이러한 政策轉換은 植民地政府當局의 有形無形의 施策 및 施設로서 표시된 好條件提供이 日本資本의 韓國進出을 가능케 함으로써 具體化될 수 있었다. 開化過程에서의 適應에 실패한 한국에는 民族資本家の 產業推進力은 허약하였고 資本主義發達이 낮은 단계에 있었으므로 產業資本家 및 資本一般은 부족하였고 그 反面에 官僚의인 產業支配力이 強大한 行政組織만이 있었으므로 日本資本誘引으로 轉換한 政策의 변화는 앞으로의 產業發展을 위해 결정적인 길을 마련해주었다. 第1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20年末까지에 625社에 불과하였던 近代的企業會社는 1936년에는 2,904社로 16年 동안에 무려 2,279社가 늘어났다. 1920年을 100으로 하여 그 增大를 指數的으로 보면 1936年은 464.6으로 16年 동안에 3.5倍加, 즉 해마다 23%가까운 企業體數의 증대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한편 公稱資本金面에서 본 投資活動의 증대는 1920년의 12억 3천 5백 29만 5천여圓에서 부터 1936년에는 55억 8천 3백 57만 4천여만圓으로 그 기간중에 43억 4천 8백 27만 9천여圓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해마다 2억 7천여만圓의 투자활동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것 역시 1920年을 100으로 할 때 452.0이라는 증대를 나타내고 있다. 이상의 투자활동의 규모를 拂入資本面에서 보더라도 1920년의 726,963千圓에서 1936년의 3,615,877千圓으로 同期間중에 2,888,914千圓 즉 年平均 180,557千圓의 신규투자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第1表를 一見하여 알 수 있듯이 한국경제에서 内部的으로 이루어진 投資增大는 同期間중에 764,377千圓으로 전체 투자액의 25%정도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75%가량인 2,124,537千圓은 外部的인 源泉에서 流入된 것이다. 이것은 한국에 本店을 둔 會社의 資本이 전부 民族資本이라고 가정하더라도 民族資本에 의하여 지배되는 近代化된 經濟部門의 크기는 全體規模의 20.1%, 約 2割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企業體 수효면에서 볼 때 한국에 本店을 가진 會社의 비율은 전체의 93.7%

(5) 全國經濟調查機關聯合會編 朝鮮經濟年報 昭和14年版, p. 201.

〈第1表〉 會社總數 (1921~36)

| 年度 | 總社數 | 總資本額 (千圓) | 韓國에 本店이 있는 會社 | | 外國에 本店이 있는 會社 | |
|------|-------|--------------|---------------|--------------|---------------|--------------|
| | | | 總社數 | 總資本額 (千圓) | 總社數 | 總資本額 (千圓) |
| 1921 | 792 | 1,321,152 | 705 | 451,366 | 87 | 869,786 |
| 1922 | 849 | 1,396,053 | 759 | 495,554 | 90 | 900,499 |
| 1923 | 1,014 | 1,876,637 | 920 | 548,410 | 94 | 1,328,227 |
| 1924 | 1,100 | 2,088,351 | 1,001 | 617,399 | 99 | 1,470,952 |
| 1925 | 1,296 | 2,099,478 | 1,189 | 432,781 | 107 | 1,666,697 |
| 1926 | 1,382 | 2,153,334 | 1,276 | 447,282 | 106 | 1,706,052 |
| 1927 | 1,472 | 2,232,255 | 1,358 | 490,997 | 114 | 1,741,258 |
| 1928 | 1,666 | 2,214,714 | 1,547 | 510,739 | 119 | 1,703,975 |
| 1929 | 1,872 | 3,070,507 | 1,768 | 616,080 | 104 | 2,454,467 |
| 1930 | 2,036 | 3,006,765 | 1,911 | 631,606 | 125 | 2,375,158 |
| 1931 | 2,151 | 3,009,404 | 2,035 | 665,045 | 116 | 2,353,359 |
| 1932 | 2,323 | 3,039,846 | 2,158 | 679,562 | 165 | 2,360,284 |
| 1933 | 2,442 | 3,067,675 | 2,280 | 682,476 | 162 | 2,385,199 |
| 1934 | 2,471 | 3,200,125 | 2,302 | 713,814 | 169 | 2,486,311 |
| 1935 | 2,487 | 3,197,994 | 2,359 | 912,553 | 128 | 2,285,445 |
| 1936 | 2,904 | 5,583,574 | 2,721 | 1,184,011 | 183 | 4,399,563 |

資料：朝鮮總督府統計年報 大正10年~昭和11年版에서 作成.

〈第2表〉 企業成長指數 (1921~36) (1920=100.0)

| 年度 | 總社數 | 總資本額 | 韓國에 本店이 있는 會社 | | 外國에 本店을 둔 會社 | |
|------|-------|-------|---------------|-------|--------------|-------|
| | | | 總社數 | 總資本額 | 總社數 | 總資本額 |
| 1921 | 126.7 | 106.9 | 129.6 | 107.5 | 107.4 | 106.6 |
| 1922 | 135.8 | 113.0 | 139.5 | 117.1 | 111.1 | 110.4 |
| 1923 | 162.2 | 151.9 | 169.1 | 30.7 | 116.0 | 162.8 |
| 1924 | 176.0 | 169.0 | 184.0 | 147.1 | 122.2 | 180.3 |
| 1925 | 207.3 | 170.0 | 218.5 | 103.1 | 132.0 | 204.3 |
| 1926 | 221.1 | 174.4 | 234.5 | 106.5 | 130.8 | 209.1 |
| 1927 | 235.5 | 180.7 | 249.6 | 117.0 | 140.7 | 213.4 |
| 1928 | 266.5 | 179.3 | 284.3 | 121.7 | 146.9 | 208.9 |
| 1929 | 299.5 | 248.5 | 325.0 | 146.8 | 128.3 | 300.9 |
| 1930 | 325.7 | 243.4 | 351.2 | 150.5 | 154.3 | 291.1 |
| 1931 | 344.1 | 243.6 | 374.0 | 156.3 | 143.2 | 288.5 |
| 1932 | 371.6 | 246.0 | 396.6 | 161.9 | 203.7 | 289.3 |
| 1933 | 390.7 | 248.3 | 419.1 | 162.6 | 200.0 | 292.4 |
| 1934 | 395.3 | 259.0 | 423.1 | 170.0 | 208.6 | 304.8 |
| 1935 | 397.9 | 258.8 | 433.6 | 217.4 | 158.0 | 280.1 |
| 1936 | 464.6 | 452.0 | 500.1 | 282.1 | 225.9 | 539.3 |

資料：〈第1表〉에서 作成

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로써 미루어 近代化過程에 들어선 한국경제의 대부분이 少數의 外國資本家 즉 日本의 獨占資本家들에 의하여 좌우되고 있으며 國外에 本店을 둔 會社의 支配力은 1920 年말의 66.0%에서 1936 年말의 79.9%로 더욱 강화되었음을 알게 된다. 이러한 趨勢는 第 2 表에서 指數的으로도 알 수 있다. 즉 한국에 本店을 둔 會社가 그 수효 면에서는 同期間중 500.1의 增大를 하였지만 資本面에서는 282.1의 성장밖에 못 했음에 반하여 國外에 本店을 가진 會社는 수효면에서는 225.5로 倍加되었을 뿐인데 資本面에서 보면 539.3으로 4 倍를 훨씬 넘고 있다는 것은 國外資本의 經濟的支配力의 增大를 反映하고 있는 것이다.

國內에 本店을 가진 會社가 모두 民族產業家의 소유이고 그 자본이 모두 民族資本이라고 하더라도 그 支配力은 지극히 微微하다는 것을 우리는 第 1 表의 資料에 대한 分析에서 즉시 알게 된다. 그러나 土着資本이면서도 外國資本과 結託한 자본가인 買辦資本家(Edgar Snow의 표현을 빌린다면 植民地的 부르조아지)들의 所有企業인 韓日人共同設立會社를 제외한 순수한 民族資本家의 企業만을 우리가 가려낸다면 亡國以後 특히 農工併進段階에 들어선 近代化過程의 第 2 期에 있어서의 民族企業은 民族產業資本家의 꾸준한 努力으로 相對的으로 증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資本額은 오히려 相對的으로나 또는 絕對的으로나 감소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第 3 表는 말하여 주고 있다. 즉 朝鮮總督府가 企業 및 資本에 있어서의 民族區分을 公式的으로 폐기한 1929 年까지에 있어 民族會社의 수효는 총 362社로 1920 年말의 99社에 비하여 263社가 증가하였고 한국안에 本支店을 둔 總會社중에서 차지하는 相對的인 크기는 1920 年말의 15.8%에서 1929 年말에는 19.3%로 相對的인 증가를 나타내고 있지만 資本額을 보면 絕對額에 있어 1920 年말의 45,276千圓에서 1929

<第 3 表> 民族會社成長 (1921~1929)

| 年度 | 總社數 | 成長比 1920=100.0 | 總社數中比 | 總資本額 (千圓) | 成長比 1920=100.0 | 總資本額中比 |
|------|-----|-------------------|-------|--------------|-------------------|--------|
| 1921 | 123 | 124.2 | 15.5% | 57,436 | 126.9 | 4.3% |
| 1922 | 107 | 108.1 | 12.6 | 57,064 | 126.0 | 4.0 |
| 1923 | 137 | 138.3 | 13.5 | 54,494 | 120.3 | 2.9 |
| 1924 | 131 | 133.3 | 11.9 | 52,482 | 115.9 | 2.5 |
| 1925 | 163 | 164.6 | 12.5 | 47,790 | 109.9 | 2.2 |
| 1926 | 184 | 185.8 | 13.3 | 51,252 | 113.2 | 2.3 |
| 1927 | 213 | 215.1 | 14.4 | 54,928 | 121.3 | 2.4 |
| 1928 | 283 | 285.8 | 16.9 | 47,735 | 105.4 | 2.1 |
| 1929 | 362 | 365.6 | 19.3 | 42,513 | 93.9 | 1.3 |

資料：朝鮮總督府統計年報 大正 10 年~昭和 4 年版에서 作成.

년말에는 42,513千圓으로 감소하였으며 公稱資本總額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1920년말의 3.7%에서 1929년말에는 1.3%로 하락하고 있다. 近代의企業形態에 투입된 民族資本의 크기가 絕對的으로나 또는 相對的으로나 가장 컸던 것은 會社들이 철폐된 직후인 1921년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第3表의 資本은 近代化에의 意識을 각성한 民族資本家の 活動이 1920년 4월 1일을 기한 法律的 差別化의 철폐로 近代의企業에서 投資로 힘차게 나타났다가 이미 構築된, 그리고 그 후로도 계속 강화되어간 巨大한 不平等機構가운데서 작용하는 逆行效果로 인하여 어떻게 쇠퇴하여 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同期間에 있어서의 1社當 平均資本額을 보면 1921년의 467千圓과 1922년의 533千圓을 피크로 하여 차츰 감소되어 오다가 朝鮮總督府의 公式發表가 알려줄 수 있는 최후의 해인 1929년에는 117千圓으로 감소되어 平均資本額이 10年이라는 기간사이에 5분의 1로 줄어들었다는 零細化過程을 第3表의 資料가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다. 第3表의 第3欄에 표시된 民族會社의 成長相을 第4表의 第2欄 및 第4欄의 外國人會社의 成長相과 비교하여 보고 또 第3表의 第6欄에 표시된 民族資本의 成長相을 第4表의 第3欄 및 第5欄에 표시된 非民族資本의 成長相과 비교하고 그 두가지 相異한 成長相을 관련시킬 경우 우리는 所得創造 및 所得分配의 源泉인 經濟活動 그 자체에의 參與가 비록 形式的, 法律的으로는 평등하게 허용되었지만 實質的으로는 얼마나 苛酷하게 拒否되어 있었던가를 알게 된다.

1911년 이후 1929년에 이르는 사이에 民族產業家の 企業體數는 13.4倍加하였고 公稱資本金面에서 본 投資活動은 5.75倍加하였으며 한편 外國資本家の 企業體數는 11.25倍加되었고 그 投資活動은 17.6倍加하였다. 앞서도 말한 바와 같이 年平均 2억 7천여만圓의

〈第4表〉 非民族資本會社의 成長 (1920=100.0)

| 年 度 | 韓國에 本店을 둔 會社 | | 本支店을 合한 全非民族會社 | |
|------|--------------|-------|----------------|-------|
| | 會 社 數 | 資 本 額 | 會 社 數 | 資 本 額 |
| | | (千圓) | | (千圓) |
| 1921 | 130.8 | 105.2 | 127.1 | 106.2 |
| 1922 | 146.5 | 117.1 | 141.0 | 112.5 |
| 1923 | 175.9 | 131.9 | 166.7 | 153.1 |
| 1924 | 195.5 | 177.6 | 184.4 | 171.0 |
| 1925 | 230.5 | 102.3 | 211.6 | 172.4 |
| 1926 | 245.4 | 105.7 | 227.7 | 176.6 |
| 1927 | 257.3 | 116.4 | 239.3 | 182.9 |
| 1928 | 284.0 | 123.6 | 262.9 | 182.1 |
| 1929 | 315.9 | 179.1 | 287.0 | 254.4 |

資料 : 〈第3表〉와 同一.

投資增大는 技術者나 商人의 流入과 더불어 植民地인 한국의 生産과 所得을 증대시킨 것은 사실이며 그것을 우리는 第9表의 숫자에서 즉시 알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分配面에 있어서 韓國人民의 物質的厚生의 증대를 직접적으로 결과 하였다고는 결코 볼 수 없다. 「民間企業이라는 點에서 보아 利潤의 일부가 領土外에 거주하는 株主들에게 지불되는 것은 당연한 일」⁽⁶⁾ 이었으므로 한국의 경우에 있어서도 투자활동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國外居住資本家들에게 그에 相應하는 상당한 정도의 所得의 流出이 있었던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에 있어서도 餘他的 植民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利潤의 상당한 부분이 植民地內에 존재하는 企業에 再投資되었으리라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이같이 새로이 도입되었거나 또는 再投資된 막대한 資本과 그결과로 생긴 生産이나 所得의 증가가 오늘날 돌이켜 생각할 때 만족 할 수 있을만한 經濟發展을 가져왔다고는 결코 볼 수 없다. Tinbergen의 引用에 의하면 Java 地域에 대한 微視的分析에서 D. H. Burger는 증가된 所得이 土着民들에게 분배되었다기 보다는 오히려 少數의 生産者集團, 그것도 주로 移住民에 집중되어 있었음을 實證하고 있으므로 近代의 生産活動의 98% 이상을 차지하고 있던 植民地化된 한국경제에 있어서의 工業化의 結實이 어디에 歸屬되었으리라는 것은 明若觀火한 일이라 하겠다. 한편 L.J. Zimmermann에 의하면 植民地一般에 있어 生産은 1人當所得과는 관련없이 다만 人口의 增大에 비례하여 증가하였다는 것이 巨視的接近法에 의하여 實證되고 있지만⁽⁸⁾ 이러한 分配面에 있어서의 不平等深化樣相은 앞으로의 論證에 미루고 이제부터는 1921년부터 1936년까지의 期間에 해마다 271,767千圓의 규모로 投下된 投資活動이 한국의 經濟構造에 어떠한 變化를 가져왔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第2節 工業化의 諸樣相

生産에 있어서의 현저한 변화란 長期的으로 보아야만 처음으로 분명해지는 것이라고 Tinbergen은 말하고 그 이유로서 1年間に 있어서의 生産能力의 증가가 매우 미약하다는 사실을 들고 있다.⁽⁹⁾ 그러나 1921년부터 1936년에 이르는 기간을 통하여 보면, 그리고 특히 30年代에 들어서면서 부터는, 生産의 증가는 현저하고 또한 꾸준한 增大趨勢를 보이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이같이 發展의 초기단계에 있어 볼 수 있는 生産增加는 生産構造

(6) Jan Tinbergen, Shaping the World Economy, 1963.

(7) D.H. Burger, Vergelijking van den economischen toestand der districten Tajoe en Djakenan, Kolff, Wiettevreden, 1939. Jan Tinbergen의 前掲書에서 再引用.

(8) L.J. Zimmermann, Arme en rijke landen, Albani, Hague, 1960. 이 역시 Jan Tinbergen의 前掲書에서의 再引用임.

(9) Jan Tinbergen, Lessons from the Past, 1963. 日譯 p. 81.

〈第5表〉 產業別會社表 (1921~1936)

| 年 度 | 第 1 次 產 業 | | 第 2 次 產 業 | | 第 3 次 產 業 | |
|------|-----------|-----------------|-----------|-----------------|-----------|-----------------|
| | 社 數 | 公 稱 資 本 | 社 數 | 公 稱 資 本 | 社 數 | 公 稱 資 本 |
| 1921 | 98 | (千圓) 147,252 | 231 | (千圓) 329,096 | 485 | (千圓) 462,003 |
| 1922 | 113 | 148,999 | 230 | 225,155 | 507 | 781,356 |
| 1923 | 133 | 575,593 | 292 | 479,407 | 642 | 2,107,228 |
| 1924 | 127 | 566,218 | 32 | 499,345 | 682 | 1,924,498 |
| 1925 | 129 | 549,308 | 365 | 571,478 | 838 | 2,140,297 |
| 1926 | 130 | 609,033 | 397 | 609,156 | 895 | 2,211,678 |
| 1927 | 140 | 578,725 | 451 | 673,568 | 925 | 2,286,886 |
| 1928 | 137 | 171,577 | 541 | 645,378 | 988 | 1,397,759 |
| 1929 | 136 | 293,057 | 564 | 577,560 | 1,172 | 2,199,930 |
| 1930 | 128 | 293,089 | 625 | 912,583 | 1,288 | 1,913,392 |
| 1931 | 133 | 298,511 | 637 | 847,858 | 1,382 | 1,863,041 |
| 1932 | 160 | 304,984 | 667 | 855,144 | 1,496 | 1,879,722 |
| 1933 | 178 | 315,193 | 715 | 889,057 | 1,549 | 1,963,425 |
| 1934 | 180 | 356,557 | 739 | 1,574,217 | 1,552 | 1,269,349 |
| 1935 | 174 | 332,036 | 818 | 1,895,696 | 1,495 | 970,260 |
| 1936 | 189 | 1263,537 | 966 | 2503,745 | 1,740 | 1,816,312 |

資料：朝鮮總督府統計年報 大正10~昭和11年版에서 作成.

〈第6表〉 同 上 比

| 年 度 | 總社數 | 資本總額 | 第 1 次 產 業 | | 第 2 次 產 業 | | 第 3 次 產 業 | |
|------|-------|-------------------|-----------|-------|-----------|-------|-----------|-------|
| | | | 社 數 | 資 本 額 | 社 數 | 資 本 額 | 社 數 | 資 本 額 |
| 1921 | 814 | (千圓) 1,118,351 | 12.0 | 13.1 | 28.3 | 29.4 | 59.7 | 57.3 |
| 1922 | 850 | 1,155,510 | 13.2 | 12.8 | 27.0 | 19.4 | 59.8 | 67.8 |
| 1923 | 1,067 | 3,162,228 | 12.4 | 18.2 | 27.3 | 15.1 | 60.3 | 66.7 |
| 1924 | 1,132 | 2,990,061 | 11.2 | 18.9 | 28.5 | 16.7 | 60.3 | 64.4 |
| 1925 | 1,332 | 3,261,083 | 9.7 | 16.8 | 27.4 | 17.5 | 62.7 | 65.7 |
| 1926 | 1,422 | 3,429,867 | 9.1 | 17.7 | 27.9 | 17.7 | 63.0 | 64.6 |
| 1927 | 1,516 | 3,539,179 | 9.2 | 16.3 | 29.7 | 19.0 | 61.1 | 64.7 |
| 1928 | 1,666 | 22,14,714 | 8.2 | 7.7 | 32.4 | 29.1 | 59.4 | 63.2 |
| 1929 | 1,872 | 3,070,547 | 7.2 | 9.5 | 30.1 | 18.8 | 62.7 | 71.7 |
| 1930 | 2,041 | 3,119,064 | 6.2 | 9.3 | 30.6 | 29.2 | 61.2 | 61.5 |
| 1931 | 2,152 | 3,009,410 | 6.1 | 9.9 | 29.6 | 28.2 | 64.3 | 61.9 |
| 1932 | 2,323 | 3,039,850 | 6.9 | 10.0 | 28.7 | 28.1 | 64.4 | 61.9 |
| 1933 | 244,2 | 3,167,675 | 7.2 | 9.9 | 29.2 | 28.0 | 63.6 | 62.1 |
| 1934 | 2,471 | 2,200,123 | 7.2 | 11.1 | 29.9 | 49.1 | 62,9 | 39.8 |
| 1935 | 2,487 | 3,197,992 | 7.0 | 10.3 | 32.9 | 59.2 | 60.1 | 30.5 |
| 1936 | 2,904 | 5,583,574 | 6.8 | 22.6 | 33.2 | 44.8 | 60.0 | 32.6 |

資料：〈第5表〉에 依據作成.

의 變化를 가져오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第5表의 資料에서 더듬을 수 있다. 全期間을 통하여 第1次産業部門에 있어서의 投資額은 8.5倍加되었으며 第2次産業部門에 대한 投資額은 7.6倍加되었으며 第3次産業部門에 있어서의 資本額은 3.9倍加되었을 뿐이다.⁽¹⁰⁾ 그러나 특히 第1次産業 및 第3次産業에 있어서의 異例的인 投資增大가 있었던 1936년을 빼고 1621년부터 1936년까지의 趨勢를 본다면 그 期間동안에 2次에 걸친 產米增殖計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民間資本으로서 第1次産業에 투입된 資本은 184,776千圓으로 15년간에 2.2倍로 늘었을 뿐이고 第3次産業 역시 새로운 投資는 328,257千圓에 그쳐 1.5倍加로 불어났을 뿐인데 第2次産業에 있어서의 새로운 投資는 1,566,600千圓에 달하여 5.8倍가까이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즉 1935년에 이르는 15년동안에 있어 産業에 투입된 자본총액의 75.3%가 第2次産業에 投下된 것이며 生産物總額에서 第2次産業이 차지하는 比重도 1921년의 15.8%에서 1936년에는 36.0%로 비약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第6表를 보고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投資資本總額중에서 第3次産業部門의 차지하는 크기는 1933년에 이르기까지도 전체의 6割을 넘고 있으며 1934년 즉 이 期間의 마지막 몇 해에 가서 처음으로 相對的地位의 變化가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이 期間전체를 통하여 꾸준한 工業化에의 努力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開國 이래 會社令 撤廢까지에 이르는 半世紀에 걸쳐 한국에 침입하여 활동하던 日本의 前近代의 商人資本이 아직까지도 近代의 産業資本으로의 轉換을 이루지 못한 채 原始的形態의 收奪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비록 아직까지도 原始産業面에 있어서의 收奪을 위주로 하는 畸型的인 형태로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현저한 成長을 해마다 거듭하고 있는 近代의 經濟活動分野에 있어서 民族資本이 차지하는 비중은 第7表 및 第8表의 史料가 보여주듯이 지극히 微微한 것이었고 투자활동의 규모도 1921년의 57,336千圓에서 1929년에는 42,513千圓으로 약 25.5%의 감소를 오히려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民族産業의 쇠퇴에 대하여 당시 刊行된 朝鮮經濟年報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즉 한국에 있어서의 「企業資本의 대부분은 소위 內地資本이며 특히 工業資本에 있어서는 그 傾向이 크므로 따라서 朝鮮을 指目하여 內地의 단순

(10) 第2次産業에 鑛業 및 製造工業뿐만 아니라 가스 및 電氣業까지도 포함시켰다. 가스 및 電氣業을 그 生産物面에서 보면 의당 서비스業에 포함시킬 것이나 여기서는 投資行爲를 중심으로 고찰하였으므로 該部門에의 투자는 鑛業에의 投資보다도 더 밀접하게 工業化와 관련을 갖는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同一한 論理가 運輸業에도 또한 妥當되겠지만 여기서는 工業化에 先行될 社會的間接資本에의 投資를 지극히 狹義로 하여 電氣産業만 포함시켰다. 이러한 점은 狹義의 社會的間接資本으로 交通만을 포함시킨 Hirschman의 立場과는 달라진다. cf. A.O. Hirschman, *The Strategy of Economic Development*, esp. pp. 83 et seq.

<第7表> 産業別民族會社 (1921~1929)

| 年 度 | 第 1 次 産 業 | | 第 2 次 産 業 | | 第 3 次 産 業 | |
|------|-----------|---------------|-----------|---------------|-----------|--------|
| | 社 數 | 資 本 | 社 數 | 資 本 | 社 數 | 資 本 |
| 1921 | 9 | (千圓) 7,480 | 17 | (千圓) 5,065 | 97 | 44,891 |
| 1922 | 7 | 9,025 | 22 | 6,605 | 78 | 41,435 |
| 1923 | 6 | 4,200 | 28 | 5,965 | 103 | 44,329 |
| 1924 | 6 | 1,400 | 29 | 1,747 | 96 | 49,335 |
| 1925 | 10 | 5,099 | 42 | 7,945 | 111 | 36,746 |
| 1926 | 13 | 7,085 | 54 | 8,158 | 117 | 36,009 |
| 1927 | 11 | 5,125 | 62 | 10,209 | 140 | 39,594 |
| 1928 | 7 | 2,300 | 104 | 10,405 | 172 | 35,030 |
| 1929 | 9 | 2,026 | 149 | 12,565 | 204 | 27,922 |

資料：朝鮮總督府統計年報 大正 10 年~昭和 4 年版에서 作成.

<第8表> 産業別民族會社比

| 年 度 | 第 1 次 産 業 | | 第 2 次 産 業 | | 第 3 次 産 業 | |
|------|-----------|----------|-----------|----------|-----------|----------|
| | 會 社 | 資 本 | 會 社 | 資 本 | 會 社 | 資 本 |
| 1921 | % 9.2 | % 5.0 | % 7.3 | % 1.5 | % 20.0 | % 6.9 |
| 1922 | 6.2 | 6.0 | 9.5 | 2.6 | 15.3 | 4.8 |
| 1923 | 4.5 | 0.7 | 9.5 | 1.2 | 16.0 | 2.1 |
| 1924 | 4.7 | 0.3 | 9.0 | 0.3 | 14.0 | 0.9 |
| 1925 | 7.7 | 0.9 | 11.5 | 1.3 | 13.2 | 1.7 |
| 1926 | 10.0 | 1.1 | 13.6 | 1.3 | 13.0 | 1.6 |
| 1927 | 7.1 | 0.9 | 13.7 | 1.5 | 15.2 | 1.7 |
| 1928 | 5.1 | 1.3 | 19.2 | 1.6 | 17.4 | 2.5 |
| 1929 | 6.6 | 0.7 | 26.4 | 2.1 | 17.3 | 1.2 |

資料：<第7表>에 依據作成.

한 工業地帶라고 하는 者도 있다. 그렇지만 이는 後進性으로 말미암아 本고장에서의 資本蓄積이 크지 않고 内地의 投資市場이 되지 않을 수 없는 關係상 勿論이 한 일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鮮內蓄積預金이 工業資本으로 轉化하는 것이 많고 또 本고장産業資本家が 輩出되고 있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다」⁽¹¹⁾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叙述에서도 표명되는 바와 같이 近代의 形態의 生産活動에 있어서의 日本資本의 獨占의 支配는 朝鮮總督府의 民族別産業資本統計가 明示해 줄 수 있는 마지막해인 1929 년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앞서 引用한 著述이 出版된 해인 1939 년에 있어서조차도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經濟的 近代化의 中核인 工業部門에 있어서는 그 傾向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鮮內

(11) 全國經濟調査機關聯合會朝鮮支部編 朝鮮經濟年報(昭和 14 年版), pp. 204~5.

蓄積預金の工業資本으로의轉化]가民族資本의相對的增加를 의미하지 않고 단순히植民地韓國에 투자된日本産業資本의利潤이再投資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은第27表의資料가 보여주는 바에 의하여 분명한 것이다. 또한「本고장産業資本家の出現」은第8表의資料가 말해주듯이 분명하며第1次産業 및 第2次産業에 투자되었던民族資本이工業資本으로轉化하고 이에 따라第2次産業의相對的比重은 다소 커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企業體數에 있어서는 전체의 26.4%에 불과하고 더구나資本額面에서 보던 고작 2.1%에 불과하므로「本고장産業資本家の出現」이經濟活動의民族別構成을 달리할 정도로 커진 것은 아니다. 다만第2次産業의相對的比重이 1921년에 있어서는會社數面에서 7.3%, 資本額面에서 1.5%이었던 것이 1922년에는 비록會社數面에서는 9.5%이지만 資本額面에서는 2.6%라는 최고수준에 달한 것은會社數의 철패로企業活動이 자유로워지자近代化에의覺醒이工業化에의努力으로集中的으로 나타난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民族資本의相對의 크기가 1929년에會社數面에서는 26.4%이고 資本額面에서는 2.1%에 머무르고 있다는事實은 20年代에 있어서의民族産業資本家の努力이 비록絶對的인 成功을 보이기는 하였지만相對的으로는 얼마나壓倒的인 규모로日本資本에 의해 억눌리게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에서 이期間을 통하여民族産業資本家の出現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工業化로의努力이相對的으로失敗한 것은會社當平均資本額의 감소에서 볼 수 있다. 즉 1921년에 있어會社全體로서 볼 때第1次産業에 종사하는會社의平均資本額은 1,502.5千圓이었고第2次産業에 있어서는 그것은 1,424.6千圓이었으며第3次産業에 있어서는 그것은 1,323.7千圓이었다. 그런데同年에 있어서의民族會社의平均資本額은第2次産業에 있어서는 831.1千圓이고第2次産業에 있어서는 297.9千圓이며第3次産業에 있어서는 462.8千圓이었다.近代化의推進體라고 볼 수 있는第2次産業에 있어서의平均資本額은民族會社의 경우 그밖의産業에 있어서의平均資本額보다 적으며第2次産業에 종사하는全會社의平均資本額의 5分の 1정도에 불과한 것이다. 이같은單位企業當經濟力의脆弱은 더욱 더 커져가서 1929년에 이르면第1次産業에 종사하는會社全體의平均資本額은 2,154.8千圓으로 증가되고第2次産業에서는 다소의 감소를 보여 1,024千圓으로 하락하였고第3次産業에서는 1,877千圓으로 증대하였는데 이에反하여韓國人資本家が經營하는民族會社의平均資本額은産業全般에 걸쳐 감소를 보여주고 있으니第1次産業에서는 225.1千圓으로, 第2次産業에서는 84.3千圓으로 그리고第3次産業에서는 136.8千圓으로 현저한下落을 보여相對的인 隔差=不平等을 더욱 크게 하고 있는 것이다. 즉第1次産業에 있어서의平均資本額은 1921년부

터 1929년에 이르는 사이에 1.8배에서 9.5배로 그 隔差를 크게 했으며 第2次産業에 있어서의 그것은 4.7배에서 11.9배로 증대하였으며 第3次産業에 있어서의 그것은 2.8배로 부터 13.7배로 커 갔던 것이다. 한국에서 활동하던 日本資本의 功過를 半世紀가 지난 지금 評價함에 있어 비록 日本産業資本의 支配가 植民地에 있어서의 民族産業資本家の 排除라는 負의 過程을 수반하면서 작용한 것은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植民地의 利益과 어느정도까지 並行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植民地에 있어서의 經濟開發을 위하여 「母國은 相當한 크기의 자본을 투하하였다. 확실히 이는 母國自身을 위한 것이었지만 母國의 利益과 植民地의 利益이 어느정도까지 並行되고 있던 것은 확실하다. 鑛山, 農圃, 鐵道의 開始는 비록 利子나 配當의 支拂이 있기는 하였지만 植民地의 所得도 또한 上昇시켰다」⁽¹²⁾고 Tinbergen은 말하고 있고 또한 우리는 그러한 植民母國의 投資活動이 植民地의 所得을 上昇시킨 한 例를 第27表에 있어서의 1人當 貯蓄額의 증대에서도 본 수 있다. 그러나 Tinbergen도 뒤이어 말하듯이 그 負의 面도 無視할 수는 없다. 즉 「植民地制度의 批判者들은 鑛山業이 그나라의 富를 枯渴시켰다——이것은 사실이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枯渴性資源의 cost에 대한 誤解에 근거하는 것으로 故意的인 擄取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그 誤에도 불구하고 補償은 여전히 필요하다」⁽¹³⁾고 하여 植民地體制下에서의 工業化가 가지는 陰影의部分을 重視하고 있다. 한편 經濟의 後進性을 工業化過程에 있어서의 惡調整과 不滿足의 增大로 定義하는 Myint는 惡調整과 不滿足發生의 최대의 原因으로서 生産活動에 있어서의 參加拒否를 들고 있는데⁽¹⁴⁾ Tinbergen이나 Myint가 주장하는 이러한 修正要素 qualification를 우리가 참작할 때 이 期間에 있어서의 工業化의 進展이 한국민의 厚生 增大와 一義的으로 關聯되어 있다고는 보기 힘들다.

이 期間全體를 통하여 物質의 生産部門에 있어서의 生産額은 전체적으로 약 79%의 成長을 보이고 있지만 第2次産業에 있어서는 283.3%의 成長을 보이고 있으며 그反面 第1次産業인 農林水産業에 있어서는 불과 32.7%의 成長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은 이 期間이 工業化로의 걸음을 시작한 端의인 表示라고 보겠다. 그러나 物質의 生産에 있어서 第2次産業인 鑛工業이 차지하는 比가 1921년의 16.5%에서 1936년에는 겨우 36.0%로 증대하였다는 것은 아직도 한국에 있어서의 支配的인 産業이 原始産業임을 말하여주고 있는 것이다.

(12) Jan Tinbergen, op. cit., p. 106.

(13) ibid., p. 106.

(14) H. Myint, "An Interpretation of Economic Backwardness," in *The Economics of Underdevelopment* ed. by A.N. Agarwala and S.P. Singh, 1958.

〈第9表〉 産業別生産高 (1921~1936) (단위 : 1,000圓)

| 年 度 | 農 業 | 林 業 | 水 産 業 | 鑛 業 | 工 業 | 總 額 |
|------|-----------|---------|---------|---------|---------|-----------|
| 1921 | 958,139 | 56,905 | 71,370 | 15,537 | 200,536 | 1,302,487 |
| 1922 | 1,051,289 | 73,472 | 74,608 | 14,504 | 223,343 | 1,437,216 |
| 1923 | 1,033,093 | 76,824 | 82,852 | 17,327 | 233,629 | 1,443,725 |
| 1924 | 1,151,602 | 74,422 | 84,872 | 19,176 | 250,762 | 1,580,834 |
| 1925 | 1,213,510 | 53,486 | 85,825 | 20,877 | 269,364 | 1,643,062 |
| 1926 | 1,139,594 | 59,947 | 90,354 | 24,130 | 299,968 | 1,613,993 |
| 1927 | 1,122,854 | 64,306 | 106,887 | 24,169 | 302,946 | 1,621,162 |
| 1928 | 1,022,604 | 64,952 | 114,329 | 26,435 | 318,714 | 1,547,034 |
| 1929 | 964,280 | 74,438 | 112,879 | 26,488 | 327,007 | 1,505,092 |
| 1930 | 724,228 | 63,360 | 82,888 | 24,654 | 280,964 | 1,176,094 |
| 1931 | 702,856 | 59,413 | 77,563 | 21,742 | 252,925 | 1,114,499 |
| 1932 | 831,816 | 55,069 | 76,095 | 33,747 | 310,837 | 1,307,564 |
| 1933 | 920,842 | 94,330 | 89,871 | 48,301 | 367,236 | 1,520,580 |
| 1934 | 1,020,148 | 106,031 | 106,157 | 69,173 | 438,402 | 1,739,911 |
| 1935 | 1,147,055 | 114,005 | 138,883 | 88,039 | 607,477 | 2,095,459 |
| 1936 | 1,208,911 | 118,065 | 164,004 | 110,430 | 730,807 | 2,332,217 |

資料 : 朝鮮總督府統計年報 大正 10 年~昭和 11 年版에서 作成.

〈第10表〉 工場 및 工産額 I (1921~1928)⁽¹⁵⁾

| 年 度 | 工 場 數 | 工 産 額 |
|------|-------|-------------|
| 1921 | 2,384 | 16,414,714 |
| 1922 | 2,900 | 163,458,610 |
| 1923 | 3,499 | 242,788,196 |
| 1924 | 3,845 | 293,946,580 |
| 1925 | 4,238 | 337,249,418 |
| 1926 | 4,293 | 365,848,317 |
| 1927 | 4,914 | 369,639,708 |
| 1928 | 5,342 | 392,533,876 |

資料 : 朝鮮總督府統計年報 大正 10 年~昭和 3 年版에서 作成.

〈第11表〉 工場 및 工産額 II (1929~1936)⁽¹⁶⁾

| 年 度 | 工 場 數 | 工 産 額 |
|------|-------|-------------|
| 1929 | 4,025 | 327,007,290 |
| 1930 | 4,261 | 280,963,560 |
| 1931 | 4,613 | 252,924,578 |
| 1932 | 4,643 | 310,836,804 |
| 1933 | 4,838 | 367,235,685 |
| 1934 | 5,126 | 438,401,736 |
| 1935 | 5,635 | 607,476,827 |
| 1936 | 5,927 | 730,806,768 |

資料 : 朝鮮總督府統計年報 昭和 4 年 11 年版에서 作成.

그러나 이 期間을 통하여 가장 현저한 발전을 이룩한 工業發展의 樣相을 工場 및 工産

- (15) 官公署工場을 포함하며 職工 및 見習工을 합하여 製造期間에 있어 平均 1日 5名 이상을 사용하는 工場 및 原動力을 갖는 工場 또는 1年의 生産額이 5千圓 이상의 工場의 計數이다. 資料는 各年度의 朝鮮總督府統計年報에 의했다.
- (16) 生産額에 있어서는 官營工場의 生産, 加工 및 修理額을 控除한 生産額의 표시이며 工場에 있어서도 官營工場은 제외되었다. 金屬精鍊 및 材料는 30名 이상의 從業員을 常用하는 설비를 갖추었거나 또는 常時 30名 이상의 종업員을 고용하는 工場生産만 計上되었고 기타는 常時 5名을 고용하거나 또는 5名 이상을 常用하는 설비를 갖춘 工場의 生産액이다. 資料는 各己 該當年度의 朝鮮總督府統計年報의 工場 및 工産額統計에 의한 것이다.

産統計에서 보면 第10表 및 第11表와 같다. 즉 工場統計의 作成基準이 바뀐 1929년을 경계로 하는 相異한 原料에서 그 發展相을 보면 1921년부터 1929년에 이르는 사이에는 工場 수요 및 工産額이 각기 2.2倍 및 2.3倍로 증가되었음에 반하여 1929년부터 1936년에 이르는 기간에 있어서는 工場數는 1.5倍加되었지만 生産物은 2.2倍加되었음을 알 수 있다. 後半期에 있어서의 生産額增大가 前半期에 있어서의 그것과 같았다는 사실은 30年代에 들어서면서 부터 工業化로의 埤포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第1次産業爲主의 發展에서 第2次産業中心의 經濟開發로 한국경제의 발전이 그모습을 달리하고 있음을 말한다. 왜냐하면 1920年代는 資本主義의 相對的인 安定期이었고 日本역시 그러한 世界的 霧圍氣속에서 永遠한 繁榮을 謳歌하고 있었던 時期이고 1930年代는 大恐慌의 襲來로 몇해에 걸친 經濟的 打撃이 있었던 時期이므로 兩期間을 통하여 工業生産의 成長이 같았다는 것은 30年代에 있어서 異例的인 工業化가 한국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볼 수 있

<第12表> 工業生産의 實質成長 (1929~1936)⁽¹⁷⁾

| 年 度 | 生 産 額 (市場價格) A | 生 産 額 (1920年不變價格) B | 成 長 率 |
|------|----------------|---------------------|-------|
| 1929 | 200,536千圓 | 265,962千圓 | 30.1% |
| 1922 | 223,343 | 297,776 | 11.9 |
| 1923 | 233,629 | 314,440 | 5.5 |
| 1924 | 250,762 | 311,119 | - 1.1 |
| 1925 | 269,364 | 317,272 | 1.9 |
| 1926 | 299,968 | 391,092 | 23.5 |
| 1927 | 302,946 | 421,930 | 7.8 |
| 1928 | 318,714 | 455,705 | 8.0 |
| 1929 | 327,007 | 482,311 | 5.8 |
| 1930 | 280,964 | 476,210 | - 1.1 |
| 1931 | 252,925 | 532,463 | 11.8 |
| 1932 | 310,837 | 658,538 | 23.6 |
| 1933 | 367,236 | 700,831 | 6.4 |
| 1934 | 438,402 | 825,615 | 17.8 |
| 1935 | 607,477 | 1,029,622 | 24.7 |
| 1936 | 730,807 | 1,167,412 | 13.3 |

資料(A) : 朝鮮總督府統計年報 大正10年~昭和11年版

(B) : 朝鮮銀行統計月報 大正10年~昭和11年の 物價指數로 修正.

(17) 實質生産額을 算出함에 있어서 利用한 deflator는 1910年7月을 基準으로 하는 京城物價指數의 年平均値이며 朝鮮銀行統計月報에 의한 것이다. 참고로 해당년도의 物價指數를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 年 度 | 1920 | 1921 | 1922 | 1923 | 1924 | 1925 | 1926 | 1927 | 1928 | 1929 | 1930 | 1931 | 1932 | 1933 | 1934 | 1935 | 1936 |
|---------|------|------|------|------|------|------|------|------|------|------|------|------|------|------|------|------|------|
| 物 價 指 數 | 305 | 230 | 229 | 228 | 246 | 259 | 234 | 219 | 214 | 207 | 180 | 145 | 144 | 160 | 162 | 180 | 191 |

다. 第9表의 資料에서 표시된 工業生産額의 증대를 1920년을 基準으로 한 不變價格으로 修正하여 그 期間동안의 工業生産의 年間實質成長의 平均率을 구하면 1921년 부터 1936년에 이르는 사이에 工業生産은 年平均 11.8%의 成長을 한 것이 되며 이는 take-off 段階에 들어선 日本의 1870~1905년간의 實質成長率과 같다. 특히 한국경제가 近代의 工業化로의 걸음을 서서히 시작하던 1930年代를 境界로 하고 보면 1921년 부터 1930年까지의 10年間的 平均實質成長率은 年 9.2%임에 반하여 1931~36年間的 그것은 16.3%에 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도 Timbergen의 主張에 修正을 加한 바와 같이 生産의 增大 및 生産構造의 현저한 變化가 長期間에 걸쳐서 가 아니라 短期間에 있어서조차도 볼 수 있는 急速한 變動이 싹트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工業生産이 미약적 발전을 보인 1936년에 있어서조차도 企業形態面에서 이를 고찰하여 보면 工産物全體에 대하여 民間工場生産은 61.2%, 官營工場生産은 7.6%이고 나머지 31.2% 즉 전체의 약 3분의 1이 家內生産인 것이다. 그런데 官營工場生産이란 專賣局의 담배 生産이 壓倒的인 크기를 차지하고 그 밖에는 機械器具 및 金屬工業으로서 鐵道局直營工場이 있고 刑務所 生産이 다소 있을 뿐이므로 이를 一旦 捨象한다면 前近代의 企業形態인 家內工業生産의 比重은 全工業生産의 51%에 달함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를 産業別로 보면 第12表와 같은데 이것은 비록 1931년 이후에 工業化로의 拍車가 加해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 內容은 아직도 虛弱한 것임을 말하여 주는 것이며 1936年以前에 있어서의 工業構造가 얼마나 脆弱했든가 하는 것을 알려 주는 것이다.

<第12表> 企業形態別工産額 (1936)

| 工業別 | 民間工場 | 比 | 官營工場 | 比 | 家內工業 | 比 |
|----------|---------|-------|--------|------|---------|-------|
| 紡織工業 | 74,787 | 75.1% | 313 | 0.3% | 24,376 | 24.6% |
| 金屬工業 | 28,365 | 84.0 | 49 | — | 5,320 | 15.7 |
| 機械器具工業 | 7,398 | 54.7 | 2,187 | 16.2 | 3,910 | 28.9 |
| 窯業 | 19,032 | 86.9 | 218 | 0.95 | 2,625 | 11.9 |
| 化學工業 | 162,462 | 83.1 | 1,437 | 0.73 | 31,530 | 6.1 |
| 木製品工業 | 3,558 | 35.8 | 496 | 4.99 | 5,880 | 59.1 |
| 印刷製木業 | 12,426 | 95.6 | 706 | 5.37 | — | — |
| 食料品工業 | 88,898 | 44.4 | 7 | 0.03 | 110,977 | 55.5 |
| 개스 및 電氣業 | 39,989 | 100.0 | — | — | — | — |
| 기타工業 | 10,002 | 8.6 | 50,160 | 50.3 | 43,179 | 41.5 |
| 合計 | 446,921 | 61.2 | 56,077 | 7.5 | 27,807 | 31.2 |

備考: 本表에는 精緞, 製綿, 製材, 鐵 이외의 金屬精鍊, 加工賃 및 修理料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資料: 全國經濟調查機關聯合會朝鮮支部編 朝鮮經濟年報 (昭和 14年版) 1939年 pp. 210~11.

量的發展으로만 始終하였던 工業化가 質的變化를 일으키면서 充實化되어가게 된 것은 대체로 朝鮮窒素肥料會社의 設立을 계기로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때까지는 「工業種類的 내용은 固定的이었고 新規工業의 勃興은 불만한 것이 없었다. 前時代의 工業構成의 詳細는 且置하고라도 비교적 經營規模가 큰 工場 소위 大·中工場工業은 紡績工業 1, 織物工場 3, 生糸工業 10餘, 製糖工業 1, 硬質陶器業 1, 製紙工業 1, 製鐵工業 1, 製粉工業이라고 하듯이 그 大多數의 社名을 暗記할 수 있을만큼 貧弱을 極하고 있었고 大·中工場의 종류가 이러한 狀況에 있으니 群小工場은 數의 증가는 있었다고 하나 그 業別은 手工業에서 한 걸음 나가는 일도 없었고 工業의 進步를 발견할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¹⁸⁾고 당시의 狀況은 記錄되어 있다. 이러한 叙述은 해마다 資本의 零細化를 경험하고 있는 民族産業會社에 대해서는 더욱 더 심하게 타당되는 것이라고 보겠다.

1921년이래 꾸준한 발전을 하여온 工業은 1931년을 전후하여 質的變化를 수반하는 비약적 발전단계로 들어서는데 여기에는 動力源의 開發이 중대한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 1911년부터 1914년에 걸친 第1回 水力調査에서 水力의 理論的發電力이 5萬7千kw, 經濟的發電力은 2만5천kw로 斷定되었던 水力資源이 1921년이래 8個年에 걸친 第2回 水力調査에서는 發電方式에 新發明이 일어난 결과로 總發電力이 223만kw로 추정되게 되었고 다시 1936년부터 4個年計劃으로 행해진 第2期 電力統制資料調査의 進行에 따라 水力 總發電力은 392만kw로 추정되게 되어 1平方km當 17.8kw의 總發電水力이 있음이 판명되었다. 그결과 「流域變更에 의한 大貯水池式高落差發電方法」에 의하여 朝鮮窒素肥料會社 赴戰江水力 약 20만kw, 長津江水力 약 23만kw, 富寧水力 2.7만kw, 虛川江水力 약 22만kw 등이 開發發電되어 低廉하고도 풍부한 電力을 기초로 하는 重化學工業의 可能性이 생겼다.

물론 이 時期에 있어서의 工業의 量的發展 및 質的變化를 초래한 原因으로서의 이러한 技術變化보다도 1931년 9월 18일 柳條溝에서 시작되어 만주진만으로 事件이 확대된 滿洲事變의 勃發 및 1933년 5월 30일의 停戰協定으로 가능해진 日本의 滿洲 및 北支進출을 위한 大陸政策에 의해 兵站基地로서 韓國의 戰略的 및 經濟的地位의 變化가 더욱 큰 역할을 한 것이며 前述한 技術變化도 이러한 政策變化로 말미암아 利用可能하게 된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水力資源의 開發은 우선 空中窒素固定工業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工業을 이땅위에 가져왔고 이를 계기로 하여 新規工業이 雨後竹筍같이 일어나면서 工業化는 새로운 樣相을 띠게 되었다. 窒素肥料工業의 勃興과 전후하여 생긴 新工業의 현저한 것으로

(18) 前掲 朝鮮經濟年報, p. 207.

로는 油脂工業, 石炭液化工業, 硬化油工業, 콘스타치工業, 高周波工業, 팔프工業, 麥酒工業, 石油工業, 마그슘工業, 造船工業, 機械器具工業이 大·中工場으로서 新設되고 在來의 紡績工業, 製鐵工業, 製鍊業, 製粉業, 鐵工業도 增設되어 重化學工業의 比重은 점차 커져 가게 되었다. 1929년 이후에 있어서의 産業別工場의 變化 및 工場勞動者의 變化를 보면

<第 13 表> 産業別工場 (1929~1936)

| | 1929 | 1930 | 1931 | 1932 | 1933 | 1934 | 1935 | 1936 |
|----------|-------|-------|-------|-------|-------|-------|-------|-------|
| 紡織工業 | 240 | 241 | 270 | 264 | 266 | 336 | 377 | 402 |
| 金屬工業 | 205 | 237 | 231 | 238 | 239 | 232 | 239 | 259 |
| 機械器具工業 | 218 | 221 | 224 | 253 | 272 | 292 | 324 | 344 |
| 窯業 | 314 | 318 | 314 | 319 | 305 | 312 | 336 | 336 |
| 化學工業 | 392 | 393 | 515 | 750 | 820 | 902 | 1,161 | 1,425 |
| 製材工業 | 152 | 153 | 163 | 174 | 201 | 206 | 240 | 271 |
| 印刷工業 | 208 | 208 | 215 | 240 | 256 | 258 | 285 | 286 |
| 食料品工業 | 1,950 | 1,958 | 2,088 | 2,142 | 2,183 | 2,268 | 2,326 | 2,258 |
| 가스 및 電氣業 | 75 | 75 | 35 | 50 | 51 | 52 | 51 | 50 |
| 其他 | 235 | 221 | 206 | 213 | 245 | 268 | 296 | 296 |
| 總計 | 3,989 | 4,225 | 4,261 | 4,643 | 4,838 | 5,126 | 5,635 | 5,927 |
| 輕工業比 | 71.7 | 71.0 | 69.9 | 66.4 | 66.2 | 66.1 | 63.5 | 60.2 |
| 重化學工業 | 28.3 | 29.0 | 30.1 | 33.6 | 33.8 | 33.9 | 36.5 | 39.8 |

資料 : 朝鮮總督府統計年報, 大正 10 年~昭和 11 年 版에서 作成.

<第 14 表> 産業別工場勞動者 (1929~1936)

| 年度 | 紡織工業 | 金屬工業 | 機械器具工業 | 窯業 | 化學工業 | 製材工業 | 印刷工業 | 食料品工業 | 가스 및 電氣業 | 其他工業 | 總計 |
|------|--------|-------|--------|--------|--------|-------|-------|--------|----------|-------|---------|
| 1929 | 19,289 | 3,117 | 3,860 | 7,130 | 10,872 | 4,001 | 5,168 | 31,720 | 1,060 | 6,349 | 92,566 |
| 1930 | 19,289 | 5,566 | 3,860 | 7,130 | 14,369 | 4,001 | 5,168 | 31,720 | 1,063 | 4,794 | 93,765 |
| 1931 | 21,194 | 5,465 | 3,264 | 6,609 | 17,203 | 3,725 | 5,166 | 34,970 | 895 | 3,452 | 101,943 |
| 1932 | 19,792 | 5,586 | 3,803 | 6,152 | 22,652 | 4,149 | 5,555 | 38,430 | 957 | 3,574 | 110,605 |
| 1933 | 21,966 | 4,142 | 4,455 | 6,326 | 24,445 | 4,522 | 6,121 | 42,529 | 1,225 | 4,589 | 120,320 |
| 1934 | 26,026 | 4,639 | 5,842 | 7,611 | 29,169 | 5,181 | 6,594 | 47,298 | 1,328 | 5,121 | 13,809 |
| 1935 | 31,450 | 7,164 | 7,427 | 9,996 | 43,169 | 6,353 | 7,157 | 48,879 | 1,283 | 5,893 | 168,771 |
| 1936 | 36,520 | 7,874 | 9,065 | 11,098 | 54,845 | 7,268 | 7,843 | 46,496 | 1,232 | 6,009 | 188,250 |

資料 : <第 14 表>와 同一.

第 13 表 및 第 14 表와 같다. 즉 1931 년부터 化學工業 工場數의 증가는 현저하여 불과 6 年동안에 1 千여개가 넘는 工場이 新設되었고 勞動者數도 또한 4 倍加되었음을 알수 있다. 化學工業만큼 현저하지는 못하지만 窯業 및 機械器具工業도 工場數 특히 勞動者數에 있어 相當한 증가를 보여 重化學工業이 全産業에서 차지하는 比는 1929 년의 28.3 % 에서 1936 년에는 39.8 % 로 증가하고 있음을 第 13 表는 말하여주고 있다. 한편 重化學工業에 종사

하는 노동자수효는 1929년의 24,979名에서 1936년에는 82,882名으로 3.3倍加하여 全體工場勞動者중에서 차지하는 比重도 1929년의 26.9%에서 1936년에는 44.0%로 거의 半가까이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原始生産物에 대한 收奪의 한 方法으로 시작되었던 精米工業중심의 食料品工業에 비하여 工場수효는 적지만 1936년에 가서는 勞動者雇傭量은 많아지고 工産額에 있어서도 1936년에는 食料品工業의 工産額 238,033千圓을 처음으로 능가하여 304,948千圓을 생산하여 工業生産에 있어 首位에 올라서게 되었다. 重化學工業의 內容을 보면 다음과 같다. 金屬工業으로서는 製鐵工業에 日本製鐵會社 兼二浦工場 및 日本高周波重工業會社 城津工場의 둘이 중요한 것으로서 1936년의 銑鐵生産은 22만噸 鋼鐵은 12.5만噸이 있고 金製鍊工業은 日本鑛業鎮南浦工場, 輕金屬工業의 日本마그네슘金屬工業會社가 있으며 機械器具工業에 있어서는 車輛製造 爲主인 龍山工作株式會社와 農工機械生産을 하는 朝鮮商工會社가 있고 窯業에서는 朝鮮小野田시멘트의 3個工場에서 生産能力 80만噸, 朝鮮시멘트會社가 50만噸, 朝鮮淺野시멘트會社의 18만噸등 148만噸의 生産能力을 가져 1937년 이후로는 처음으로 重要産業統別法の 規制를 받을만큼 발전했으며 그밖의 陶磁器工業이나 硝子工業 또는 煉瓦工業은 아직도 微微하며 化學工業에 있어서의 人造肥料에 있어서는 朝鮮窒素肥料會社에서 年間需要量인 30만噸을 훨씬 넘는 50만噸의 年間硫酸生産能力을 갖고 있으며 그 밖에 日鐵兼二浦製鐵所硫酸工場이 있고 1935년에는 朝鮮窒素肥料會社가 姉妹會社인 朝鮮石炭工業會社를 세워 石炭液化工業을 시작하였고 石油精製工業으로서 1934년 7월 石油業法實施이전에 처음으로 精油工場이 한 둘 생기고 1935년 3월에 特殊會社로서 朝鮮石油株式會社가 생겨 重油, 개솔린등을 생산케 되었고 植物油製造工業에 있어서는 日華製油本浦工場에서 棉實油를, 朝鮮窒素肥料會社에서 大豆油를 제조하고 그 밖에도 北鮮油脂會社 및 日陞公司新義州工場에서 滿洲大豆로 製油하고 있었다. 한편 魚油製造工業은 정어리를 原料로 하는 家庭工業의 小工場인 4백여개나 東海岸沿岸에 건설되고 있다. 硬化油工業으로서는 朝鮮窒素, 朝鮮油脂, 朝鮮協同油脂 등에서 魚油를 原料로 硬化油 및 글리세린등을 생산하고 이를 계기로 하여 비누工業도 大規模化해가고 있으며 朝鮮窒素化學工場의 설립으로 火藥工業도 새로 생겼고 中小工業의 性格을 갖던 고무工業도 三和고무會社를 중심으로 集中化현상을 농후히 해갔으며 製紙工業은 王子製紙新義州工場과 北鮮製紙化學工業會社가 pulp生産을 위주로 하는 近代工場으로 君臨하고 있고 皮革工業은 朝鮮皮革會社 및 大田皮革會社, 工業藥品製造工業으로는 朝鮮窒素會社가 獨占的으로 생산하고 있다.

한편 輕工業分野에 있어서 위선 紡績工業에 있어서는 巨大工場은 모두가 日本의 有力

會社의 分工場으로서 그 주요한 것은 朝鮮紡績, 京城紡績, 東洋紡績仁川工場 및 永登浦工場, 鐘淵紡績光州工場 및 永登浦工場등이 近代的大工場으로 紡機는 거의 30 만錠에 달하고 있으며 織物工業도 朝鮮棉花, 朝鮮絹織, 大昌織物등을 중심으로 工場生産이 종래의 家內工業을 완전히 壓倒하고 있으며 製絲工業은 片倉, 郡是, 鐘紡등의 大工場을 중심으로 1252 噸의 生絲를 1936 년에 생산하고 있다. 工場工業의 大宗을 차지하여 오던 食料品工業에 있어서는 1933 年말에 朝鮮麥酒會社 및 昭和麥酒會社가 설립되었고 滿洲事變을 계기로 다시 活氣를 띠우게 된 製粉工業에 있어서는 日本製粉의 3工場, 日淸製粉 및 豐國製品의 2工場등 6個工場이 國內 및 滿支方面을 상대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澱粉工場으로는 日本穀產工業會社가 澱粉, 포도당, 글텐피드등을 생산하는데 그 규모는 東洋第一이었다. 製糖工業에서는 日糖平壤工場이 年産 5 萬噸內외의 생산활동을 하고 製菓工業역시 近代化되어가고 있는데 주요한 工場은 豐國製菓 및 京城製菓를 들 수 있다. 機械化된 大規模工場에 있어 他國의 추종을 不許하는 精米工場은 5 千여개 工場에 달하고 있으며 그 밖의 飲料水工業, 통조림工業, 寒天製造工業, 燒酒등의 釀造工業은 아직도 中小工業 내지 家內工業의인 테두리에 머물고 있는 것이 1936 年까지의 食料品工業의 實情이었다. 그밖의 工業으로서는 琿草製品製造工業에 종사하는 4個의 近代工場에서 1935 年 현재 12 萬圓에 달하는 생산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煉炭製造工業은 1935 年 11 月 朝鮮煉炭會社에 全工場의 약 7 割이 統合되었고 家內工業으로서 莞草製品工業 및 藁工品工業이 다소 활발한 생산활동을 하고 있었다.

工業의 地域的偏在은 工業化에 수반되는 필연적인 현상인데 이러한 現象은 이 期間에 있어서 현저히 나타나 南農北工이라는 經濟活動의 地域的分業化類型의 形成을 보게 되었다. 종래까지는 한국의 産業 및 文化의 발달은 黃海에 面하는 西半部平野地帶에 국한되었고 嶺東 및 關北의 山岳地帶은 이러한 經濟 및 文化의 發達에서 무시된 奧地를 이루고 있었다. 1910 年 이후에도 이러한 상태는 계속되었고 특히 植民母國인 日本이 自國의 工業發展을 위한 補助手段으로서 한국에 있어서의 農業生産增大策을 취하면서 부터는 더욱 더 農業價値가 적은 이들 山岳地方의 相對的不振은 심하였다. 그러던 것이 水力資源의 開發과 이를 계기로 하는 近代的工業이 勃興하자 여러가지 産業立地上의 好條件으로 北部地方의 經濟的開發은 현저해졌고 그 결과 南部에는 農業을 중심으로 한 輕工業이 支配的이 되고 北部에는 새로운 重化學工業이 支配的이 되게 되었다. 이를 全體적으로 본다면 産業의 均衡있는 分布라고 하지만 經濟開發이 重化學工業의 成長與否에 크게 依存하는 특히 20 世紀에 있어서의 工業發達の 傾向에 비추어볼 때 急速한 工業化로의 主導權은 北部

에 壓倒的으로 偏在하게 되었다며 이때 形成된 産業의 地理의 分布는 解放이후에 있어서의 南韓經濟의 相對的停滯 및 依存經濟化에 決定的인 契機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近代的 工業化가 屢차게 시작되기 전인 1927년에 있어서의 道別工産額을 1936년에 있어서의 그것과 비교해 보면 這間의 움직임을 알 수 있다. 즉 第15表의 資料에 의하면 대체로 현재의 軍事境界線을 경계로 하는 南北에 있어서의 工産額은 1927년에는 南이 70% 北이 30%이던 것이 1931년에는 南이 68%, 北이 32%가 되었고 1936년에는 南이 55% 北이 45%로 거의 半半의 生産活動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를 다시 16表의 資料에 의하여 道別 및 輕·重工業別로 보면 南은 金屬工業에 있어 23.2% 機械器具工業에 있어서 72.5% 窯業에 있어 36.7% 그리고 化學工業에 있어서는 24.2%를 차지하여 결국 重化學工業 전체의 27.5%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편 輕工業에 있어서는 紡織工業의 85.7%, 木製品工業의 70.4%, 印刷 및 製本業의 91.1%, 食料品工業의 67.9% 개스 및 電氣業의 23.4% 그리고 기타 工業의 78.4%를 차지하며 輕工業 전체의 71%를 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工業發展의 原動力이 되는 에너지 産業인 개스 및 電氣工業을 近代的 工業化의 核心인 重化學工業과 同一한 범주에 속하게 한다면 에너지 産業을 포함시킨 重化學工業의 73%가 北에 존재하는 輕工業은 그 75.4%가 南에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같은 重化學工業의 北部朝鮮偏重은 물론 資源의 北部偏在에도 말미암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이 얻은 植民地의 滿洲經營을 위하여 政策的으로도 北에 置重되었다고 볼

<第15表>

道別工産額

(단위 : 1,000圓)

| 道別 | 1927 | 比 | 1931 | 比 | 1936 | 比 |
|----|---------|-----|---------|-----|---------|-----|
| 京畿 | 73,227 | 24% | 58,678 | 24% | 144,597 | 20% |
| 忠北 | 4,835 | 1 | 3,034 | 1 | 7,569 | 1 |
| 忠南 | 11,683 | 4 | 7,901 | 3 | 20,875 | 3 |
| 全北 | 13,411 | 4 | 10,341 | 4 | 23,595 | 3 |
| 全南 | 26,524 | 9 | 16,825 | 7 | 50,641 | 7 |
| 慶北 | 37,891 | 13 | 27,965 | 11 | 51,005 | 7 |
| 慶南 | 36,453 | 12 | 31,123 | 13 | 80,714 | 14 |
| 江原 | 10,580 | 3 | 12,903 | 5 | 24,578 | 3 |
| 黃海 | 12,992 | 4 | 9,795 | 3 | 49,850 | 7 |
| 平南 | 37,843 | 13 | 27,270 | 11 | 62,580 | 9 |
| 平北 | 14,075 | 5 | 10,523 | 4 | 30,584 | 4 |
| 咸南 | 10,406 | 3 | 30,796 | 12 | 143,942 | 20 |
| 咸北 | 13,020 | 4 | 5,763 | 2 | 40,271 | 5 |
| 總計 | 302,945 | 100 | 252,924 | 100 | 730,806 | 100 |

備考 : 官營工場을 포함하고 製綿, 製材, 精穀 및 加工賃을 포함않음.

資料 : 朝鮮總督府統計年報 昭和 2年, 6年 및 11年版

<第16表> 類別各道工産額 (1936年 現値) (단위 : 1,000圓)

| 道別 | 紡織 | 木製品 | 印刷製本 | 食料品 | 其他 | 개스電氣 | 金屬 | 機械器具 | 窯業 | 化學工業 |
|----|--------|-------|--------|---------|---------|--------|--------|--------|--------|---------|
| 京畿 | 30,732 | 2,884 | 10,009 | 36,434 | 33,688 | 3,586 | 4,804 | 5,077 | 3,414 | 13,966 |
| 忠北 | 1,549 | 50 | 50 | 3,833 | 1,380 | — | 109 | 26 | 115 | 454 |
| 忠南 | 2,881 | 254 | 137 | 12,593 | 2,622 | 915 | 288 | 228 | 262 | 691 |
| 全北 | 2,542 | 279 | 265 | 7,398 | 8,840 | 435 | 221 | 692 | 395 | 2,522 |
| 全南 | 15,491 | 813 | 159 | 19,833 | 7,114 | 1,124 | 518 | 596 | 400 | 4,590 |
| 慶北 | 8,811 | 652 | 446 | 17,670 | 17,065 | 392 | 545 | 808 | 349 | 4,262 |
| 慶南 | 21,262 | 1,850 | 852 | 31,054 | 9,183 | 1,947 | 1,152 | 1,939 | 2,954 | 8,513 |
| 江原 | 1,940 | 299 | 63 | 6,761 | 1,488 | 942 | 187 | 426 | 145 | 12,323 |
| 黃海 | 1,989 | 352 | 52 | 11,715 | 2,481 | 2,233 | 21,276 | 496 | 786 | 8,466 |
| 平南 | 6,529 | 812 | 390 | 29,053 | 10,987 | 97 | 1,671 | 1,430 | 6,101 | 5,504 |
| 平北 | 2,553 | 548 | 171 | 8,568 | 6,064 | 252 | 1,046 | 545 | 240 | 10,592 |
| 咸南 | 2,688 | 613 | 289 | 9,995 | 1,914 | 27,728 | 1,490 | 487 | 5,388 | 93,347 |
| 咸北 | 405 | 524 | 239 | 4,971 | 1,011 | 333 | 422 | 747 | 1,320 | 30,194 |
| 總額 | 99,477 | 9,936 | 13,133 | 199,883 | 103,842 | 39,988 | 33,735 | 13,503 | 21,876 | 195,430 |

備考: 官營工場을 포함하며 製綿, 製材, 精穀 및 加工賃不包含.

資料: 朝鮮總督府統計年報 昭和 11年版

수 없는 것도 아니다.

1910년이래로 産業의 발달이 日本資本主義의 발전을 위하여 희생적인 畸型的形態를 취하여 이루어 졌고 1921년 이후 특히 30年代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소위 帝國經濟물력의 一環으로서 더구나 大陸進出을 위한 兵站基地로서의 構造變化에 따라 하나의 國民經濟로서의 한국경제의 自立性은 완전히 무시되는 형태로 경제발전은 추진되고 그것이 漸增하는 對日 經濟依存性으로 나타났다. 第17表에 의하면 한국의 對外貿易중 第三國에 대한 輸出入額은 전체무역액의 31.6%를 차지하고 있던 것이 1920년에는 29.8%로 하락하고 다시 1931년에는 12.1%로 그리고 1936년에는 13.9%로 다소 회복되기는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對日貿易이 무역액전체에서 차지하는 크기는 1910년의 68.4%에서 1936

<第17表> 한국 무역의 構成 (단위 : 1,000圓)

| 年 度 | 第三國에 대한 | | | | 日本에 대한 | | | |
|------|---------|------|---------|-------|---------|-------|---------|-------|
| | 輸 出 | 比 | 輸 入 | 比 | 輸 出 | 比 | 輸 入 | 比 |
| 1910 | 4,535 | 7.5% | 14,434 | 24.1% | 15,378 | 25.7% | 25,348 | 42.4% |
| 1920 | 27,639 | 6.1 | 106,174 | 23.7 | 169,380 | 38.1 | 143,111 | 32.1 |
| 1931 | 12,771 | 2.3 | 52,695 | 9.8 | 249,026 | 46.7 | 217,770 | 40.8 |
| 1934 | 57,673 | 5.8 | 79,527 | 8.1 | 407,693 | 41.4 | 439,622 | 44.6 |
| 1935 | 64,902 | 5.3 | 100,589 | 8.3 | 485,893 | 40.4 | 558,813 | 46.1 |
| 1936 | 75,266 | 5.5 | 114,499 | 8.4 | 519,047 | 38.1 | 647,918 | 47.7 |

資料: 朝鮮經濟年報 昭和 14年版, p. 338

년에는 86.1%로 증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미 한국의 국제무역은 자유로이 第三國을 相對로 하여 比較生産費說이 설명하여 주는 바와 같은 國際分業의 利益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帝國主義日本의 經濟發展을 위한 補助裝置로서 隸從되어 갔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그 端의인 표시로 우리는 1910년에 있어서의 日本으로부터의 輸入比가 全體貿易額의 42.4%이었던 것이 1936년에는 47.7%로 늘어 日本의 商品市場化의 度가 커졌음에서 볼 수 있으며 1931년의 2.3%에서 第三國에 대한 輸出이 1936년에는 5.5로 上昇한 것이 日本의 滿洲 및 北支經營에 따르는 該地域에 대한 輸出增加의 結果라는 데서도 또한 貿易面에 있어서의 隸從의 度를 짐작케 할 수 있게 된다.

1921년부터 1936년에 이르는 16年間に 輸出額은 218,277千圓에서 593,313圓으로 2.7배가 늘어 났고 輸入額은 232,382千圓에서 762,417千圓으로 3.3배가 늘어 전체무역의 규모는 450,659千圓에서 1,355,730千圓으로 3倍加되었다. 그러나 16년의 오랜 세월이 걸쳐 한국의 무역이 出超를 기록한 것은 1924년과 1925년 뿐이며 그 나머지 年度에는 모두 入超現象을 겪고 있음을 第18表는 보여주고 있다. 그리하여 國際收支의 赤字가 貿易額에 대하여 차지하는 比는 1921년의 3.1%에서 1936년에는 12.5%로 더욱 더 커져가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특히 그 比率이 1929년의 10%에서 1930년에는 15.9%로 격증한 것은 1929년의 世界恐慌이 日本經濟에 미친 주름살을 한국에 밀어부친 때문이라고 볼 수 있

<第18表> 輸出入累年表 (1921~1936)

| 年 度 | 輸 出 | 輸 入 | 入 超 |
|------|-------------|-------------|-------------|
| 1921 | 218,277,223 | 232,381,584 | 14,104,361 |
| 1922 | 215,404,403 | 256,044,807 | 40,640,404 |
| 1923 | 261,665,732 | 265,790,727 | 4,124,995 |
| 1924 | 329,039,094 | 309,533,336 | 19,445,758 |
| 1925 | 341,630,533 | 340,011,781 | 1,618,752 |
| 1926 | 362,954,800 | 372,169,783 | 9,214,983 |
| 1927 | 358,924,702 | 383,417,007 | 24,492,305 |
| 1928 | 365,978,524 | 413,990,943 | 48,012,419 |
| 1929 | 345,664,056 | 423,093,551 | 77,429,495 |
| 1930 | 266,547,178 | 367,048,758 | 100,501,580 |
| 1931 | 261,798,539 | 270,466,331 | 8,667,792 |
| 1932 | 311,354,050 | 320,356,016 | 9,001,966 |
| 1933 | 368,627,722 | 404,185,460 | 35,557,738 |
| 1934 | 465,367,435 | 519,149,930 | 53,7892,45 |
| 1935 | 550,796,131 | 659,403,342 | 108,607,211 |
| 1936 | 593,313,046 | 762,417,134 | 169,104,088 |

資料：朝鮮總督府統計年報 大正 10年~昭和 11年版에서 作成.

다. 한편 赤字의 크기가 輸出額에 대하여 차지하는 크기는 1921년의 6.4%에서 1930년의 37.7%를 거쳐 1936년에는 28.4%에 달하고 있어 全貿易額에서 차지하는 赤字의 相對的增大보다도 輸出額에서 차지하는 그것이 더욱 커져감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輸入에 比한 輸出의 相對的停滯로 인해 國際收支의 逆調가 더욱 강하게 느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기간전체를 통한 貿易赤字를 보면 무려 682,177,322圓에 달하고 있다는데 이것은 年平均 4천 3백만圓이 넘는 入超이다.

한국이 日本의 工業製品의 市場化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日本의 工業을 위한 原料供給地로 轉落하여 依存經濟化하였다는 것은 第19表 및 第20表의 輸出入貿易의 商品構成에서 즉시 알 수 있다. 우선 輸入貿易의 商品構成을 보면 食料品은 1921년에 있어 전체의

<第19表> 輸 入 貿 易 構 成 (1921~1936)

| 年度 | 食 料 品 | 同 比 | 原 料 品 | 同 比 | 全 製 品 其 他 | 同 比 |
|------|--------------|------|-------------|------|-------------|-------|
| 1921 | 14,217,109 圓 | 6.1% | 9,976,717 | 4.3% | 208,187,758 | 89.6% |
| 1922 | 25,180,115 | 9.8 | 8,530,368 | 3.3 | 222,334,324 | 86.9 |
| 1923 | 31,353,634 | 11.7 | 9,716,249 | 3.6 | 224,720,846 | 84.7 |
| 1924 | 51,106,694 | 16.5 | 12,313,726 | 3.9 | 246,272,916 | 79.6 |
| 1925 | 73,507,794 | 21.6 | 16,619,323 | 4.6 | 249,884,654 | 73.8 |
| 1926 | 73,639,095 | 19.7 | 36,039,649 | 9.6 | 262,492,039 | 70.7 |
| 1927 | 78,864,891 | 20.5 | 36,607,855 | 9.5 | 267,936,566 | 70.0 |
| 1928 | 61,761,863 | 14.9 | 39,589,613 | 9.5 | 320,639,467 | 75.6 |
| 1929 | 63,389,030 | 14.9 | 47,008,377 | 11.1 | 312,696,144 | 74.0 |
| 1930 | 54,354,004 | 14.8 | 35,876,336 | 9.7 | 276,818,418 | 75.5 |
| 1931 | 26,300,190 | 9.7 | 24,314,612 | 9.0 | 219,851,529 | 81.3 |
| 1932 | 38,519,438 | 12.0 | 45,650,761 | 14.2 | 236,185,187 | 73.8 |
| 1933 | 35,542,154 | 8.0 | 55,417,681 | 13.7 | 313,325,625 | 78.3 |
| 1934 | 41,874,889 | 8.0 | 78,030,178 | 15.0 | 399,244,913 | 77.0 |
| 1935 | 59,977,015 | 9.0 | 81,579,729 | 12.3 | 517,846,638 | 78.7 |
| 1936 | 64,707,581 | 8.4 | 100,841,591 | 13.2 | 596,867,962 | 78.4 |

資料：朝鮮總督府統計年報 大正 10年~昭和 11年版에서 作成.

6.1%에 불과하고 原料製品은 4.2%에 지나지 않아 나머지 89.6%를 이루고 있는 것이 全製品인 것이다. 한국으로 부터의 米穀強制輸出이 커지면서 부터는 이를 보충할 大豆, 小麥粉, 粟 등 雜穀輸入이 증가하여 食料品の 輸入比는 1936년에는 8.4%로 증가하고 한편 30年代 이후로는 工業化에의 걸음이 시작되었으므로 原料品の 輸入도 13.2%로 증가되었지만 여전히 輸入의 大宗을 이루고 있는 것은 주로 日本에서 수입되는 完製된 工業製品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이 기간 전체를 통하여 全製品 其他의 輸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다는 것은 그리고 大恐慌을 계기로 하여 81.3%로 다

시 相對的上昇을 보였다는 것은 한국경제가 日本의 完전한 商品市場의 地位에서 조금도 改善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輸出貿易의 商品構成에 있어서는 原料供給地로서의 한국경제의 依存性을 여실히 말하여 주고 있다. 全體輸出總額에서 食料品이 차지하는 크기는 1921 年の 62.8 % 이태 꾸준히 60 % 臺를 유지하고 있으며 日本에서 어느정도 米穀增産이 실현되고 또 日本農民사이에 朝鮮米排斥運動이 일어나던 1930 年代 특히 이때문에 米穀統制法을 制定公布하여 朝鮮米 輸入을 억제하기 시작한 1933 年 이후에 있어서 겨우 그 比重은 53.5 % 에서 다시 1936 年 에는 50.2 % 로 하락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한편 鑛山物의 수출은 1921 年の 2.8 % 에서 1936 년에는 3.3 % 로 비록 그 사이에 다소의 變動은 있었지만 全輸出總額은 3 % 臺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수 있다. 이러한 原始生産物을 제외한 工業製品 기타의 輸出은 1920 年代에 있어서는 35 % 臺를 유지하고 있다가 30 年代 이후에 와서는 45 % 臺로 증대 하였는데 이는 특히 1931 年 이후에 있어서의 한국에서의 近代의化學工業의 勃興결과 工業製品의 수출이 증대한 것을 말하는데 그 輸出相對國도 日本이라기보다는 새로 日本의

<第 20 表> 輸 出 貿 易 構 成 (1921~1936)

| 年度 | 食 料 品 | 同 比 | 鑛 產 物 | 同 比 | 其 他 | 同 比 |
|------|-------------|-------|------------|------|-------------|-------|
| 1921 | 137,176,926 | 62.8% | 6,069,882 | 2.8% | 75,030,415 | 34.4% |
| 1922 | 134,867,998 | 62.6 | 4,476,990 | 2.0 | 76,059,415 | 35.4 |
| 1923 | 154,336,782 | 51.3 | 5,786,490 | 2.2 | 101,542,460 | 46.5 |
| 1924 | 212,663,095 | 64.6 | 5,722,808 | 1.7 | 110,652,689 | 33.7 |
| 1925 | 213,675,594 | 62.5 | 5,169,323 | 1.5 | 122,785,616 | 36.0 |
| 1926 | 239,391,214 | 65.9 | 10,921,653 | 3.0 | 112,641,933 | 31.1 |
| 1927 | 237,585,512 | 66.2 | 11,923,926 | 3.3 | 109,415,264 | 30.5 |
| 1928 | 232,860,384 | 63.6 | 14,981,106 | 4.1 | 118,157,034 | 32.3 |
| 1929 | 200,041,403 | 57.9 | 15,212,835 | 4.4 | 130,409,818 | 37.7 |
| 1930 | 148,193,421 | 54.8 | 11,586,160 | 4.3 | 106,767,597 | 40.9 |
| 1931 | 170,374,756 | 65.0 | 9,291,418 | 3.7 | 82,132,365 | 31.3 |
| 1932 | 186,613,992 | 59.9 | 16,791,680 | 5.3 | 107,948,378 | 34.8 |
| 1933 | 197,405,410 | 53.5 | 23,927,762 | 6.4 | 147,294,550 | 40.1 |
| 1934 | 265,917,531 | 57.1 | 38,598,174 | 8.2 | 160,851,730 | 34.7 |
| 1935 | 283,481,548 | 51.4 | 30,577,396 | 5.5 | 236,737,187 | 43.1 |
| 1936 | 297,610,318 | 50.2 | 29,392,178 | 3.3 | 276,310,550 | 46.5 |

資料：朝鮮總督府統計年報 大正 10 年~昭和 11 年版에서 作成.

支配下에 들어선 滿洲 및 北支方面이며 이 方面으로의 輸出市場開拓이 工業製品기타의 輸出의 相對的上昇을 가져온 것이다. 즉 第 17 表를 볼 때 第三國에 대한 輸出은 1931 年の 2.3 % 에서 1934 년에는 5.8 % 로 다시 1936 년에는 5.5 % 로 倍加되었음에 反하여 對日輸

출은 1931년의 46.7%에서 1936년에는 오히려 38.1%로 감소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그 후로도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¹⁹⁾.

國內에서의 米穀生産만으로는 需要의 89% 정도밖에 충족시켜주지 못하였던 日本이 새로이 얻은 植民地에서 바란 것은 不足糧穀의 確保이었던 것은 두말할 필요조차도 없었던 것이며 日本自身の 食糧確保를 위한 努力은 이 期間에 있어서는 第1次(1920년) 및 第2次(1926년)에 걸친 產米增殖運動으로 나타났고 그리하여 貿易面에서는 한국으로부터의 米穀輸出의 증대라는 현상을 야기시켰다. 第21表의 資料가 말하여 주듯이 米穀輸出額이 輸出總額중에서 차지하는 크기는 第1次產米增殖計劃이 실시 되면서부터 급격히 증대하여 1921년의 42.5%에서 1925년에는 50.6%에 이르렀고 다시 第2次計劃이 실시되면서부터는 1926년의 53.0%에서 1931년의 52.8%까지 대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日本에서의 食糧事情의 好轉과 朝鮮米排斥이 시작된 이후 특히 米穀統制法이 실시된 다음 부터 다시 하락하여 1936년에는 42.3%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相對的比重에 불과하며 絕對額은 1921년의 92,813千圓에서 1936년에는 250,954千圓으로

<第21表> 米 穀 輸 出 額 (1921~1936)

| 年 度 | 價 額 | 輸出額對比 | 年 度 | 價 額 | 輸出額對比 |
|------|-------------|-------|------|-------------|-------|
| 1921 | 92,812,971圓 | 42.5% | 1929 | 148,815,971 | 43.0 |
| 1922 | 95,810,293 | 45.9 | 1930 | 109,678,687 | 41.1 |
| 1923 | 113,012,983 | 43.1 | 1931 | 138,482,355 | 52.8 |
| 1934 | 164,483,444 | 49.9 | 1932 | 145,337,226 | 46.6 |
| 1925 | 173,163,744 | 50.6 | 1933 | 154,706,658 | 41.9 |
| 1926 | 192,568,492 | 53.0 | 1934 | 224,267,179 | 48.1 |
| 1927 | 191,574,674 | 53.3 | 1935 | 243,777,249 | 44.2 |
| 1928 | 183,730,389 | 50.2 | 1936 | 250,954,016 | 42.3 |

資料：朝鮮總督府統計年報 大正 10年~昭和 11年版에서 作成.

2.7倍加되었으며 輸出量도 1921년의 335만石에서 1936년에는 826만石으로 2.5倍로 증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이 허약한 經濟 및 貿易構造를 가진 植民地經濟下에서 貴金屬形態로의 富의 流出은 필연적인 것이며 이러한 流出은 1921년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第1次大戰 이후의 相對的인 安定期에 있어 金銀의 日本流入은 年平均 4백만圓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30年代에 들어와서 金本位制度의 動搖때문에 金の 對日流出은 현저히 증가하였다. 즉 1930年 1월에 金解禁이 실시되자 金輸出額은 前年の 5,210千圓에서 일약 15,072千圓으로 3倍로 늘었

註：(19) 1937년에 있어서의 第三國에 대한 輸出은 7.3%로 다시 증대되었지만 日本에 대한 輸出은 36.9%로 더욱 감소되고 있는 것이다.

〈第22表〉 金銀流出累年表 (1921~1936)

| 年 度 | 輸 出 額 | 輸 入 額 | 出 超 額 |
|------|-------------|------------|-------------|
| 1921 | 7,390,044 圓 | 2,540,522 | 4,829,560 |
| 1922 | 4,189,038 | 1,147,346 | 3,039,332 |
| 1923 | 6,593,226 | 1,059,778 | 5,535,158 |
| 1924 | 5,736,906 | 1,591,464 | 4,145,442 |
| 1925 | 4,358,122 | 809,985 | 3,548,137 |
| 1926 | 7,451,649 | 469,247 | 6,982,402 |
| 1927 | 5,262,969 | 521,431 | 4,741,538 |
| 1928 | 3,669,777 | 537,891 | 3,131,886 |
| 1929 | 6,096,811 | 886,205 | 5,210,606 |
| 1930 | 26,803,559 | 11,731,489 | 15,072,070 |
| 1931 | 39,548,016 | 21,957,216 | 17,590,755 |
| 1932 | 28,315,206 | 10,604,620 | 17,710,586 |
| 1933 | 24,395,393 | 3,848,101 | 20,547,292 |
| 1934 | 36,349,943 | 402,033 | 35,947,910 |
| 1935 | 210,592,789 | 73,217,642 | 137,375,147 |
| 1936 | 65,573,672 | 8,044,412 | 57,529,260 |

資料：朝鮮總督府統計年報 大正 10 年~昭和 11 年版

으며 그 다음해인 1931년 12월의 金輸出再禁止 이후에도 계속 증가하여 1935년에는 空前의 記錄인 137,375千圓의 金銀의 出超가 있었던 것이다. 이기간 전체를 통하여 日本으로 흘러간 金銀價額은 3억 4천 3백만圓에 달한다. 日本에서의 金需要의 증가로 金鑛開發 및 金生産增加는 급속화되어 1910년의 金 및 砂金合計 3,746,250그램에서 1922년에는 3,325,691그램이 되었던 것이 1936년에 이르러서는 17,489,974그램으로 불과 15년동안에 5배이상으로 증가되었고 日本鑛業, 三菱鑛業, 住友, 野口등 日本의 大財閥에 의한 金鑛開發이 활발하게 행하여졌던 것이 이 기간의 일이다.

第3節 生活水準의 變化

日本資本主義의 發達을 위하여 한국에 있어 他律的으로 수행되는 工業化가 한국인민의 厚生增大를 가져오지 못할 것임은 명백한 일인데 우리는 한국에 있어서의 他律的인 資本主義發達이 한국인민에게 미치는 負의 效果를 우선 1人當 米穀消費量의 趨勢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1910年の 1人當 0.6971石에서 1920년에는 0.612石으로 한국인민이 누리게 된 食生活面에 있어서의 현저한 厚生減少는 이미 본 바와 같거니와 그후에도 1人當 消費量의 감소는 對日米穀輸出의 증대에 따라 현저해져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收穫高의 時系列을 1年 물려서 前年度의 수확고에서 當年の 輸出入差를 공제한 國內米穀供給을 當年

의 人口數로 나누어 年年의 1人當 消費量을 보면 第23表에서 分명한 바와 같이 1921년 의 0.660石에서 1935년에는 0.372石으로 감소되고 1936년에는 비록 다소의 증대를 보였

<第23表> 쌀 產 出 高 및 消 費 高 (1921~1936)

| 年 度 | 收 穫 高 | 輸出高(輸出-輸入) | 人 口 數 | 1 人 當 消 費 高 |
|------|--------------|-------------|------------|-------------|
| 1921 | 14,324,352 石 | 3,349,600 石 | 17,452,918 | 0.660 石 |
| 1922 | 15,014,292 | 2,816,188 | 17,626,761 | 0.652 |
| 1923 | 15,174,645 | 3,753,582 | 17,884,963 | 0.629 |
| 1924 | 13,219,322 | 4,140,009 | 18,068,116 | 0.617 |
| 1925 | 14,773,102 | 3,449,770 | 19,015,526 | 0.513 |
| 1926 | 15,300,707 | 4,685,449 | 19,103,900 | 0.528 |
| 1927 | 17,298,887 | 5,095,039 | 19,137,698 | 0.533 |
| 1928 | 13,511,732 | 6,094,037 | 19,189,699 | 0.583 |
| 1929 | 13,701,746 | 4,717,874 | 19,331,061 | 0.454 |
| 1930 | 19,180,677 | 4,264,392 | 20,256,563 | 0.464 |
| 1931 | 15,872,999 | 8,540,441 | 20,262,958 | 0.525 |
| 1932 | 16,345,825 | 7,014,785 | 20,599,876 | 0.430 |
| 1933 | 18,192,720 | 7,439,846 | 20,791,321 | 0.428 |
| 1934 | 16,717,238 | 9,272,603 | 21,125,827 | 0.421 |
| 1935 | 17,884,669 | 8,559,116 | 21,891,180 | 0.372 |
| 1936 | 19,410,763 | 8,257,104 | 22,047,836 | 0.437 |

資料：朝鮮總督府統計年報 大正 10 年~昭和 12 年版에서 作成.

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0.437石으로 하락된 채로 있어 當時의 日本人의 1人當 消費量에 비하면 약 3분의 1의 水準에서 맴돌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동안에 있어서의 米穀 生産의 增大는 人口增大로 인한 需要增大를 충족하기에 충분하였지만 당초의 340만石에서 825만여石으로 3배가까이 증대된 對日輸出로 말미암아 生活水準의 현저한 하락을 食生活面에서 격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한편 不平等機構의 作用은 生産活動에 있어서의 民族資本家の 參與를 沮止하였을 뿐 만 아니라 所得의 分配面에 있어서도 강력하게 작용하여 이 기간전체를 통하여 한국노동자의 平均賃金은 第24表에서 알 수 있듯이 日本人勞動者の 61.3%에서 55.4%사이를 上下하고 있었고 職種別로 볼 때는 製靴工의 79.3%의 최고에서 최하는 平人夫의 47.1%에 이르기 까지 상당한 報酬差를 나타나게 하고 있다. 특히 1931년에 있어서의 한국노동자의 平均賃金이 日本人勞動者の 그것에 비해 55.4%밖에 안된다는 것은 景氣後退時에 있어 賃金切下가 한국인노동자에게 더욱 가혹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표시가 되는 것이다. 물론 이같이 한국인노동자가 일본인노동자에 비하여 3분의 2밖에 안되는 低賃金을 받는다는데는 단순

한 民族의差別化이외에도 技術 및 熟練度의 差에서 오는 當연한 隔差도 있다고 보아야 하지만 生活의 向上을 실현하여주는 中대한 수단인 技術向上을 第28表 및 第29表의 資料가 말하여 주듯이 教育이라는 源泉面에서 배제하고 있는 植民地的不平等機構下에서는 技術의 差 그 自體가 既存하는 不平等의 所産이며 이는 스스로를 확대재생산하는 不平等과 貧困의 惡循環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1921년부터 1936년간에 이르는 사이에 있어 한

<第24表> 勞 賃 表 (1921~1936) (단위 : 1,000 圓)

| 職 種 | 1921年 | | 1926年 | | 1931年 | | 1936年 | |
|-----------|-------|------|-------|------|-------|------|-------|------|
| | 日 人 | 韓 人 | 日 人 | 韓 人 | 日 人 | 韓 人 | 日 人 | 韓 人 |
| 목 수 | 3.66 | 2.35 | 3.56 | 2.01 | 2.98 | 1.87 | 3.13 | 1.97 |
| 家具製造人 | 3.49 | 2.13 | 3.55 | 2.02 | 3.04 | 1.69 | 2.97 | 1.92 |
| 造船工 | 3.62 | 2.31 | 3.85 | 2.31 | 3.18 | 1.77 | 3.21 | 2.04 |
| 미 쟁 이 | 3.93 | 2.45 | 3.88 | 2.29 | 3.32 | 1.87 | 3.37 | 2.10 |
| 石 工 | 4.07 | 2.37 | 4.02 | 2.32 | 3.41 | 1.94 | 3.47 | 2.09 |
| 製材工 | 3.53 | 2.29 | 3.69 | 2.17 | 3.09 | 1.64 | 2.96 | 1.82 |
| 기 와 공 | 3.93 | 2.52 | 3.97 | 2.20 | 3.27 | 1.90 | 3.16 | 1.92 |
| 벽 돌 공 | 3.71 | 2.51 | 4.02 | 2.37 | 3.31 | 1.88 | 3.30 | 2.08 |
| 펄 키 工 | 3.56 | 2.19 | 3.54 | 2.04 | 3.05 | 1.75 | 2.97 | 1.85 |
| 돛 차 리 쟁 이 | — | — | 3.41 | — | 2.85 | 1.49 | 2.92 | 1.78 |
| 表 具 師 | 3.13 | 2.05 | 3.28 | 1.88 | 2.93 | 1.58 | 2.93 | 1.62 |
| 桶 工 | 3.22 | 1.80 | 3.13 | 1.87 | 3.02 | 1.63 | 2.80 | 1.70 |
| 車 輛 製 造 人 | 3.46 | 2.47 | 3.18 | 2.05 | 2.89 | 1.55 | 2.86 | 1.70 |
| 염 색 공 | 2.52 | 1.40 | 2.23 | 1.27 | 2.33 | 1.26 | 2.46 | 1.37 |
| 양 복 공 | 2.94 | 2.05 | 3.02 | 2.08 | 2.55 | 1.40 | 2.42 | 1.43 |
| 製靴工 | 2.65 | 1.95 | 2.61 | 2.07 | 2.50 | 1.46 | 2.26 | 1.41 |
| 植字工師 | 2.40 | 1.48 | 2.51 | 1.40 | 2.18 | 1.25 | 2.04 | 1.21 |
| 理髮師 | 2.33 | 1.50 | 2.00 | 1.27 | 1.97 | 1.10 | 1.93 | 1.23 |
| 平 人 夫 | 1.86 | 1.04 | 1.71 | 0.89 | 1.40 | 0.66 | 1.43 | 0.77 |
| 土 木 工 夫 | 2.40 | 1.37 | 2.03 | 1.03 | 1.83 | 0.85 | 1.83 | 0.93 |
| 漁 夫 | 2.44 | 1.56 | 2.16 | 1.46 | 1.70 | 0.90 | 1.98 | 1.25 |
| 荷 役 夫 | 2.30 | 1.39 | 2.65 | 1.31 | 2.28 | 1.25 | 2.09 | 1.36 |
| 平 均 額 | 3.12 | 1.91 | 3.09 | 1.82 | 2.69 | 1.49 | 2.66 | 1.62 |
| 韓 人 / 日 人 | 61.3% | | 58.9% | | 55.4% | | 60.9% | |

資料 : 朝鮮總督府統計年報 大正10年版, 昭和1年版 및 昭和11年版에서 作成.

국에 있어서의 勞動者의 相對的地位의 變化를 보면 第25表 및 第26表와 같다. 1921년을 100으로 한 生産額의 증대를 雇傭量의 증대로 나누면 勞動者 1人當의 產出高를 얻을 수 있다. 한편 1921년을 100으로 한 賃金變化를 物價上昇으로 나누면 勞動者의 平均實質購買力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1人當產出高로 이 平均實質購買力을 나눈 것이 勞動生産性의 變化에 대한 實質所得의 變化 즉 勞動者의 相對的地位라고 볼 수 있는데 이같이 計

<第 25 表>

勞動者의 相對的地位(I) (1921~1936)

| 年 度 | 生 產 額 | 雇 傭 | 1 人 出 產 高 | 賃 金 | 物 價 指 數 | 平 均 實 質 購 買 力 | 相 對 的 地 位 |
|------|-------|-------|-----------|-------|---------|---------------|-----------|
| 1921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1922 | 111.3 | 110.9 | 100.3 | 103.3 | 99.6 | 103.8 | 103.4 |
| 1923 | 116.5 | 140.7 | 82.6 | 97.9 | 99.1 | 98.7 | 119.4 |
| 1924 | 125.0 | 148.4 | 84.2 | 95.3 | 106.9 | 89.1 | 105.8 |
| 1925 | 134.3 | 163.0 | 82.4 | 92.8 | 112.6 | 82.4 | 100.0 |
| 1926 | 149.5 | 169.2 | 88.3 | 92.0 | 101.7 | 90.4 | 102.3 |
| 1927 | 151.6 | 180.8 | 83.8 | 92.4 | 95.2 | 97.0 | 115.7 |
| 1928 | 158.9 | 201.9 | 78.7 | 93.7 | 93.0 | 100.9 | 128.2 |
| 1929 | 163.6 | 190.1 | 86.0 | 92.4 | 90.0 | 102.6 | 119.3 |
| 1930 | 140.1 | 206.9 | 67.7 | 88.2 | 78.2 | 113.0 | 166.9 |
| 1931 | 126.1 | 216.5 | 58.2 | 74.0 | 63.0 | 117.4 | 201.7 |
| 1932 | 155.0 | 224.4 | 60.1 | 65.2 | 62.6 | 104.1 | 173.2 |
| 1933 | 183.1 | 246.0 | 74.4 | 62.4 | 69.5 | 89.7 | 120.5 |
| 1934 | 218.6 | 281.3 | 77.7 | 62.4 | 70.4 | 88.6 | 114.1 |
| 1935 | 302.9 | 342.4 | 88.4 | 62.4 | 78.2 | 79.7 | 90.1 |
| 1936 | 364.4 | 381.8 | 95.4 | 67.4 | 83.0 | 81.2 | 85.1 |

資料：朝鮮總督府統計年報 大正 10 年~昭和 11 年版에서 作成. 但 物價指數는 朝鮮銀行月報에 依함.

<第 26 表>

勞動者의 相對的地位(II) (1921~1939)

| 年 度 | 1 人 當 產 出 高 | 賃 金 | 物 價 及 租 稅 指 數 | 平 均 實 質 購 買 力 | 相 對 的 地 位 |
|------|-------------|-------|---------------|---------------|-----------|
| 1921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1922 | 100.3 | 103.3 | 98.2 | 105.1 | 104.7 |
| 1923 | 82.6 | 97.9 | 93.0 | 105.2 | 127.3 |
| 1924 | 84.2 | 95.3 | 94.3 | 101.0 | 119.9 |
| 1925 | 82.4 | 92.8 | 109.2 | 84.9 | 103.0 |
| 1926 | 88.3 | 92.0 | 111.3 | 82.6 | 93.5 |
| 1927 | 83.8 | 92.4 | 114.5 | 80.7 | 96.3 |
| 1928 | 78.7 | 93.7 | 122.5 | 76.4 | 97.0 |
| 1929 | 86.0 | 92.4 | 113.7 | 81.2 | 94.4 |
| 1930 | 67.7 | 88.2 | 101.4 | 86.9 | 128.3 |
| 1931 | 58.2 | 74.0 | 92.9 | 79.6 | 136.7 |
| 1932 | 60.1 | 65.2 | 94.2 | 69.2 | 115.1 |
| 1933 | 74.4 | 62.4 | 106.7 | 58.4 | 78.4 |
| 1934 | 77.7 | 62.4 | 121.4 | 51.4 | 66.1 |
| 1935 | 88.4 | 62.4 | 133.4 | 46.7 | 52.8 |
| 1936 | 95.4 | 67.4 | 135.6 | 49.7 | 52.0 |

資料：〈第 25 表〉와 同一함. (但 租稅指數 역시 朝鮮總督府統計年報 大正 10 年~昭和 11 年版서 作成)

算하여 볼 때 1921 年부터 1936 年에 이르는 사이에 勞動者의 相對的地位는 계속 改善되어 가다가 1935 年에 이르러 처음으로 악화되고 1936 년에는 더욱 惡化되고 있음을 第 25 表

는 말하여 주고 있다. 그러나 第 25 表에 있어 勞働者의 實質所得을 算定함에 있어서는 다만 價格의 變動만을 論하고 賃金은 租稅額을 公제하기 이전의 크기를 사용하였으므로 실제의 經濟的地位와는 差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第 26 表에서는 이 점을 고려하여 平均實質購買力은 租稅를 公제하고 난 실제의 可處分所得으로 표시하기 위해 修正要素로서 租稅指數를 物價指數에 追加하였다. 이같이 하여 산출된 勞働者의 相對的地位는 近代的租稅國家出現의 負擔으로 말미암아 더욱 惡化되어 1921 年을 기준으로 하여 본다면 +36.7%에서 -48%까지 이르는 상당한 起伏을 보이고 있으며 相對的上昇이 있었던 해가 7年間, 下落을 경험한 해가 8年間이며 1933 년이후로는 뚜렷한 相對的地位의 下落을 示顯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日本資本主義가 帝國主義段階로 들어가면서 對外侵略에 狂奔하는 한편 國內의으로도 勞働者一般에 대한 收奪을 強化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民族間에 있어서의 所得의 不平等은 郵便貯金の 1人當 平均額의 差에서도 볼 수 있다. 1921 年에 있어 日人의 郵便貯金口座數는 331,841 座이고 貯金額은 16,070 千圓에 달하여 1人當 貯金額은 48.43 圓인데 비하여 한국인의 그것은 口座數 1,084,484 座, 貯金額 2,657 千圓으로 2.45 圓에 불과하다. 그런데 1921 年에 있어 日本人의 戶數는 99,955 戶이고 人口數는 367,618 人이므로 日本人은 戶當 平均 3 口座, 金額으로 平均 160 餘圓 全人口가 1人當 43.7 圓 貯金을 가진 셈이 된다. 그런데 同年에 있어 한국인의 戶數는 3,201,125 戶이고 人口는 17,059,358 人이므로 前述한 貯金은 3 戶當 1 口座, 1人當 16 錢이 되는 셈이므로 한국인과 일본인의 저축액을 전민적으로 본다면 273 대 1이라는 현격한 差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한국인의 1人當 貯金額은 꾸준한 增大를 보여 1936 년에는 3.32 圓으로 되었지만 여전히 戶當 1 口座도 안되며 전민적으로 쪼갤 때 1人當 42 錢에 불과한 한편 日本人의 그것은 戶當 5 口座 全人口가 1人當 42.5 圓으로 여전히 100 倍가 넘는 貯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이 郵便貯金面에서 多少의 改善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전체로 보아 한국인민의 厚生이 증대되었다고는 斷定할 수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하기로 한다.

投資活動과 더불어 장애에 있어서의 생산의 증가를 가능케 하고 생활의 향상을 실현시켜주는 技術教育에 있어서도 不平等은 尤甚한 바 있으며 이것은 장애에 있어서의 不平等을 가일층 크게 하였을뿐만 아니라 현대에 있어서의 快適한 文明生活에의 參與를 拒斥함으로써 相對的인 厚生減少를 가져오게 되었다. 第 28 表의 資料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1921 年이래 1936 年까지 公立實業學校의 학생수효는 日本學生이 6 倍加한데 비하여 韓人

<第 27 表>

郵便貯金累年表 (1921~1935)

(단위 : 1,000 원)

| 年 度 | 日 人 | | | 韓 人 | | |
|------|---------|------------|--------|-----------|-----------|--------|
| | 人 數 | 金 額 | 1 人當平均 | 人 數 | 金 額 | 1 人當平均 |
| 1921 | 331,841 | 16,069,768 | 48.43 | 1,084,484 | 2,656,570 | 2.45 |
| 1922 | 392,395 | 17,111,061 | 43.61 | 1,198,075 | 2,764,032 | 2.31 |
| 1923 | 433,304 | 18,141,306 | 41.87 | 1,260,783 | 2,899,036 | 2.30 |
| 1924 | 438,763 | 18,112,984 | 41.28 | 1,167,977 | 2,916,865 | 2.50 |
| 1925 | 489,857 | 18,525,659 | 37.82 | 1,221,733 | 3,005,463 | 2.46 |
| 1926 | 507,946 | 19,236,324 | 37.87 | 1,287,912 | 3,229,802 | 2.51 |
| 1927 | 542,526 | 23,184,210 | 42.73 | 1,367,752 | 3,777,008 | 2.76 |
| 1928 | 584,542 | 26,481,546 | 45.30 | 1,439,435 | 4,305,957 | 2.99 |
| 1929 | 595,777 | 31,349,222 | 52.62 | 1,482,825 | 4,937,196 | 3.33 |
| 1930 | 594,814 | 33,726,244 | 56.70 | 1,523,364 | 5,126,622 | 3.37 |
| 1931 | 594,766 | 36,067,452 | 60.64 | 1,689,105 | 5,365,217 | 3.18 |
| 1932 | 597,898 | 34,525,049 | 57.74 | 1,896,164 | 6,414,343 | 3.38 |
| 1933 | 667,356 | 37,383,811 | 56.02 | 2,173,300 | 7,423,343 | 3.42 |
| 1934 | 741,462 | 44,385,000 | 59.86 | 2,414,632 | 8,276,000 | 3.41 |
| 1935 | 838,992 | 45,738,000 | 54.51 | 2,732,245 | 9,082,000 | 3.32 |

資料 : 朝鮮總督府統計年報 大正 10 年~昭和 8 年에서 作成. 但 1934, 35 兩年是 朝鮮經濟年報 昭和 14 年版附錄에 依據함.

學生은 4 倍加되었을뿐이고 敎職員의 수에 있어서도 처음의 5 대 1 에서 末期에는 6 대 1 로 그 比率이 감소되어가고 있다. 더구나 萬여명에 달하는 實業學校學生中 한국인은 그 대부분이 農業學校의 학생이며 商業學校學生數에 있어서는 日人學生이 壓倒的으로 많음을 우리는 알게 된다. 즉 1935 년현재 農業學校在學生중 日人學生은 770 名임에 비하여 韓人學生은 5,644 名이고 한편 商業學校에 있어서는 日人學生이 3,089 名임에 반하여 韓人學生은 2,806 名에 불과한 것이다. 또한 당시의 最高學部였던 京城帝大에 있어서의 敎育狀況을 보더라도 職員에 있어 日人은 韓人의 4 倍가 되고 학생수에 있어서는 2 倍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당시 韓國에 있던 日本人人口가 고작 60 萬을 헤아릴 뿐임에 반하여 한국인 인구는 2,137 萬이었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機會均等이라는 面에 있어서 조차도 그 門戶가 閉鎖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 京城帝大在學生을 學部制로 볼 때 1936 년현재 法文學部에 籍을 둔 日人學生은 110 名이고 韓人學生은 83 名인데 醫學部에 籍을 둔 日人學生은 262 名이고 韓人學生은 87 名임을 알 수 있는데 이 역시 高等技術에의 接近을 막는 植民地敎育制度의 一現象形態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不平等機構가 확립되기 시작한 중요한 時期인 1921 년부터 1936 년에 이르는 16 年間에 있어서의 經濟發展을 工業化를 爲主로 하여 그것이 미치는 正 및 負의 厚生效果에 고려를

<第28表> 技術教育狀況 (1921~1936) — 公立實業學校의 경우

| 年 度 | 校 數 | 職 員 數 | | 學 生 數 | | 卒 業 生 數 | |
|------|-----|-------|-----|-------|--------|---------|-------|
| | | 口 人 | 韓 人 | 日 人 | 韓 人 | 口 人 | 韓 人 |
| 1921 | 31 | 193 | 38 | 714 | 2,500 | 71 | 308 |
| 1922 | 34 | 233 | 50 | 1,236 | 3,322 | 154 | 717 |
| 1923 | 38 | 284 | 58 | 1,525 | 3,657 | 189 | 956 |
| 1924 | 40 | 316 | 62 | 1,809 | 3,853 | 279 | 892 |
| 1925 | 41 | 367 | 66 | 2,125 | 4,377 | 283 | 857 |
| 1926 | 43 | 384 | 61 | 2,840 | 5,130 | 323 | 551 |
| 1927 | 44 | 397 | 65 | 3,049 | 5,804 | 379 | 997 |
| 1928 | 44 | 421 | 67 | 3,206 | 6,359 | 526 | 934 |
| 1929 | 44 | 450 | 69 | 3,383 | 6,939 | 539 | 1,246 |
| 1930 | 45 | 470 | 72 | 3,479 | 7,066 | 553 | 1,156 |
| 1931 | 47 | 499 | 74 | 3,637 | 7,350 | 596 | 1,278 |
| 1932 | 47 | 524 | 79 | 4,055 | 7,418 | 597 | 1,487 |
| 1933 | 48 | 530 | 80 | 4,004 | 7,885 | 632 | 1,493 |
| 1934 | 50 | 529 | 89 | 4,136 | 8,442 | 659 | 1,601 |
| 1935 | 54 | 589 | 86 | 4,160 | 9,379 | 801 | 1,830 |
| 1936 | 55 | 628 | 89 | 4,204 | 10,090 | 808 | 2,002 |

資料：朝鮮總督府統計年報 大正10年~昭和11年版에 依함.

<第29表> 高等教育狀況(1926~1936) — 京城帝國大學의 경우

| 年 度 | 職 員 數 | | 學 生 數 | |
|------|-------|-----|-------|-----|
| | 日 人 | 韓 人 | 日 人 | 韓 人 |
| 1926 | 52 | 5 | 103 | 47 |
| 1927 | 156 | 16 | 226 | 89 |
| 1928 | 214 | 32 | 324 | 145 |
| 1929 | 326 | 75 | 386 | 166 |
| 1930 | 352 | 69 | 383 | 190 |
| 1931 | 389 | 85 | 352 | 182 |
| 1932 | 398 | 100 | 407 | 191 |
| 1933 | 388 | 118 | 407 | 202 |
| 1934 | 391 | 118 | 433 | 188 |
| 1935 | 439 | 126 | 465 | 210 |
| 1936 | 470 | 128 | 372 | 170 |

資料：朝鮮總督府統計年報 昭和11年版에 依據.

주면서 대략 이상과 같이 우리는 살펴 보았다. 原始的인 農業國이었던 李朝의 滅亡후 他律的인 資本主義化가 처음에는 單一栽培農式의 原始産業收奪에서 시작되었지만 1920 年을 고비로 해 가지고는 工業化로의 門戶를 서서히 開放하였고 1930 年代에 들어서면서는 日本의 大陸政策의 一環으로서 所謂 農工併進이라는 형태로 工業化가 추진되기 시작했고 그것이

이상에서 보아온 바와 같은 發展을 가져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상 보아온 바와 같은 一切의 發展 특히 前節에서 살펴본 工業生産의 增加가 직접적으로 韓國民에게 經濟的進歩와 厚生增大를 가져왔다고는 볼 수 없다. 이러한 疑問과 관련하여 Tinbergen은 適切한 判斷을 내리고 있다. 즉 그는 勞動時間의 단축, 새로운 消費財의 증대등의 發展을 論한 끝에 「그같은 發展을 實業家, 進歩의指導者, 大衆들이 일반적으로 믿고 있는 바와 같이 進歩라고 불리서는 안 된다고 懷疑派는 몇번이나 되풀이 말 해왔다. 물론 變化임에는 틀림없지만 정말로 사람들의 生活이 改善되었는가. 保守派나 反動派양측에서 잘 알고 있었던 것이며 懷疑派의 의심이 옳았던 것이다. 조금 素朴한 經濟的觀察을 하는 사람은 대답에 窮하는 일없이 물론 물건이 늘면 人間의 행복이 증대된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경험에 의하여 경제학자조차도 좀 더 복잡한 생각을 하게 되었으며 지금에 와서는 우리는 反對로 作用하는 힘을 몇가지 지적할 수 있다. 첫째로 우리는 불월간 더 많이 소비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버릇이 생기게 되며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것은 消費 그 자체보다는 消費의 增加가 될 것이며 둘째로 다른 사람들과의 比較가 더욱 큰 役割을 하게 될 것이며 셋째로 눈에 익은 製品이외에 새로운 製品이 생기면 그것도 갖고 싶어서 그것이 곧 入手안되면 이전과 동일한 消費水準을 갖고 있어도 不幸하게 생각하게 될 것이다. 넷째로 所得의 格差와 그 不正함에 대해 強調하는 社會主義者의 宣傳이 사람들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들을 不幸하게 했다. 이들 反對로 作用하는 힘의 대부분의 存在는 社會主義者를 포함하는 大多數의 觀察者가 인정하는 바이다」⁽⁴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近代化란 본시가 物質的改善만으로는 不充分하다는 것을 우리는 物質的進歩를 論함에 있어 銘心해두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社會的正義를 위시한 그밖의 非物質的인 要素가 항상 그리고 반드시 物質的改善을 補充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一切가 否認된 한국에서 工業化로 표현되는 物質的改善이 한국민의 幸福에 寄與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工業化가 自律的으로, 즉 自國民의 이익을 위하여 自國民의 손으로 이루어질 경우에 있어서도 이같은 厚生減少作用을 物質的進歩의 他面에 造成시키는 것인데 그것이 植民地體制下에서 植民母國의 利益을 위하여 이루어질 때는 物質的進歩라는 結實마저도 植民地人民의 手中에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印度나 그밖의 나라의 경우에도 보듯이 征服당한 植民地의 富가 征服者인 植民母國보다 적은 경우는 거의 없는 것이다. 그들이 自然資源이란 점에서 식민지보다 훨씬 가난하고 또 당시의 經濟發展의 정도에

(40) Jan Tinbergen, op. cit., p. 24.

있어서도 앞섰다가보다는 뒤졌다는 事情때문에 富에 대한 掠奪者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한국을 지배하게 된 日本도 그 例外일 수는 없다. 日本은 「日本民衆의 生活上의 落後와 貧困, 그리고 日本에 있어서의 自然資源의 稀少性」⁽²¹⁾때문에 西歐植民帝國의 毒牙에서 벗어났고 또 바로 그러한 原因때문에 極東에 있어서의 帝國主義的侵略者로 등장하게 된 것이므로 비교적 豊富하고도 均衡있게 賦存된 自然資源과 經濟의富를 가진 한국에서의 工業化가 결국 日人의 致富와 한국인의 相對的地位의 惡化를 結果한다는 것은 필연적인 事實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이다.

〔筆者 서울大學校商科大學 專任講師〕
〔 서울大學校商科大學 〕
〔 韓國經濟研究所 研究員 〕

(21) Herbert Norman, 「日本에 있어서의 近代國家의 成立」, p. 46.

<Summary>

**A Study in the Industrialization of Korea
Conceived as
the Process of Increasing Inequality, 1910~1960**

— A Tentative Approach —

*Jong-Chul Lim**

I. The Growth of Modern Business Enterprise.

After the abolition of the notorious "Company Act" in 1920, modern business enterprises mushroomed overnight in Korea. Native businessmen rushed into establishing industrial companies and whatever resources available for them were invested in industry and trade. The years subsequent to Independent Movement of March 1, 1919 could be called the period of nation-wide modernization and it was not exceptive in the field of industry and trade. Companies owned by Korean increased from 99 in 1929 to 362 in 1936. But ten years of discrimination under the Company Act gave irrecoverable injuries to them. Exploitations by Japanese rulers were so ruthless to them that they could not stand on equally competitive footing even after the discriminative law ceased to work. We could find out that the native capital invested in modern enterprises shrunk from 57 million yen in 1920 to 42 million yen in 1936 while that of foreign (mainly Japanese) enterprisers increased from 1,264 million yen to 5,541 million yen during the same period. During that time average annual investment amounted to 270 million yen, of which more than 220 million yen was supplied from outside of Korean territory. In 1921, Japanese enterprisers owned 669 companies and the total capital amounted to 1,264 million yen while Korean enterprisers owned 123 companies and capital invested by them

* Instructor of Economics, College of Commerce, Seoul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Member of the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Seoul National University.

amounted to 57 million yen. After 16 years of free competition, the former owned 2,254 companies and the capital amounted to 5,541 million while the latter owned 362 companies and the capital amounted to 42 million yen. We can see clearly that the average size of Japanese companies has grown larger and larger, and that of Korean has shrunk smaller and smaller.

In 1936, the share of Korean in productive activities (except for agriculture) was only 2%. Industrial activities have grown by about 350% during that time. It is obvious that industrialization had a beneficial effect on the living of Korean people. Nevertheless, no one could deny that almost all the fruits of industrialization had been taken away to Japan or distributed exclusively to Japanese settlers.

II . Changes in the Industrial Structure.

The changes in industrial structure were remarkably quick during that time. The capital invested in manufacturing industry were nearly 8 times as large in 1936 as in 1921. More than three quarters of net investment were concentrated to the secondary industry. The share of secondary industry in total national products rose from 15.8% in 1921 to 36% in 1936. Notwithstanding this change, the share of capital invested in tertiary industry was still over 60% even in 1933 and dropped to less than 40% just after the Japanese imperialists had conquered Manchuria and made her their new market.

In 1921, the share of national capital in primary industrial enterprise, in secondary industry and tertiary industry were 5%, 1.5% and 6.9% respectively, and after ten years of free competition the share reduced to 0.7%, 2.1% and 1.2% respectively in 1929. Evidently, native enterprisers and native capitals were literally shut out from participating in economic activities contrary to what the Japanese rulers reported proudly then.

In the still predominantly agricultural economy, industrial plants more than doubled during 1921~36, and the industrial products more than tripled. But

still in 1936, nearly one-third of industrial products were produced in primitive cottage industry, and less than another one-third were the products of rice-mill industry. Industrial products in the true meaning of the word accounted only little more than one-third of all industrial products.

Early in the 1930's remarkable changes were seen in industrial structure. By then, rich water power resources were found and water power plants were constructed. With cheaper and richer electric power, a number of up-to-date chemical and heavy industries came to be established.

The most notable among them are Heung Nam Fertilizer Plant and Sungjin Steel and Iron Plant. The change in the shares of heavy and light industrial plants is shown in the following table.

| | 1929 | 1930 | 1931 | 1932 | 1933 | 1934 | 1935 | 1936 |
|-----------------------------|-------|------|------|------|------|------|------|------|
| Heavy and chemical industry | 28.3% | 29.0 | 30.1 | 33.6 | 33.8 | 33.9 | 36.5 | 39.8 |
| Light industry | 71.7% | 71.0 | 69.9 | 66.4 | 66.2 | 66.1 | 63.5 | 60.2 |

In 1929, little more than 10 thousand workers were employed in chemical industry while in food industry more than 30 thousand workers were employed and weaving and spinning industry, nearly 20 thousand workers were employed. But by 1936, the workers employed in chemical industry outnumbered that of the food-industry by 6 thousand. The products of heavy and chemical industry amounted to 305 million yen. It accounted nearly 42% of total industrial products.

But the local distribution of industry was extremely uneven. The heavy and chemical industry was concentrated to the northern half, and light industry was concentrated to the southern half of the country. Nearly 73% of heavy industry (including chemical and electric power industry) located to the north of the 38th parallel and more than 75% of light industry located to the south. This unevenness in the local distribution of industry was intentionally pushed by Japanese rulers under the phrase of "Industrial North and Agricultural South" because the northern half of Korea is rich of power and mineral

resources whereas the southern half is agricultural district. But this proved to be a fatal blow to the south only too soon.

During that time Korea traded exclusively with Japan and the share of trade with third country was less than 14%. The balance of payments had been unfavorable all the time except for 1924 and 1925. and the trade gap widened from 14 million yen in 1921 to 169 million yen in 1936. The share of food-stuff and raw material was 10.4% in import trade in 1921 and 21.6% in 1936 while that of finished goods had been more than three-quarters of imports. On the other hand, export of Korea composed of predominantly primary goods. In 1921, the share of food-stuff and raw-material in export trade was 65.6%. It dropped to 53.5% in 1936 as mentioned above, one-third of industrial products were produced in primitive farm-house and so we can guess that much of finished goods exported from Korea was not what can be called as manufactured goods. Rice export accounted always for one-half of her exports and because of it the living standard of Korean people was worsened year by year.

III . Change in the Living Standard.

Per capita consumption of rice dropped from 0.66 suk in 1921 to 0.437 suk in 1936 while that of Japanese remained 1.2 suk during that time. It was a hard blow to Korean who live on rice. Average wages were lower than Japanese laborers by 40~45% and their real purchasing dropped by 52% during the same time. Post-office savings increased from 2.45 yen to 3.32 yen per person who had savings account, but that of Japanese were 18 times as much.